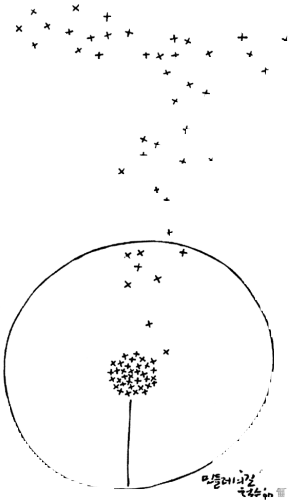
# 공감 다섯살, 참 고맙습니다

200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창립 5주년 기념 자료집

# 공감 다섯살, 참 고맙습니다

공감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그리는 길

# 공감

시 저

200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창립 5주년 기념 자료집

# 공감 다섯살, 참 고맙습니다


4 인사말
공감의 5년은 희망의 기록입니다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6 여는 글
포기에 맞서야 한다

8 공감 방문기
수줍은 청년의 얼굴, 공감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

14 공감 다시보기
공감이 도대체 뭐가 특별한데?

21 영역별 활동 에세이_희망을 변론하다
여성인권/장애인권/이주와 난민/빈곤과 복지
주민자치/국제인권/공익활동 중개

42 기획 좌담회
공감을 향한 쓴소리 · 단소리

49 기획 인터뷰_공익법활동을 듣는다

50 국경을 넘어 현장으로
Tyler Giannini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 인권 클리닉 소장

56 일본의 난민변호사를 만나다
와타나베 쇼고(渡邊彰悟) 변호사

61 고전의 울림, 김선수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66 특강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원순 씨가 예비법조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71 기고
공감 : 한국의 공익법 영역의 새 얼굴
Patricia Goedde 성균관대 교수

75 칼럼_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
고정관념, 나도 모르게 나를 얽매는 바로 그 시선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대표
그 년, 목욕가다
김비 작가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오. 나도 평화의 나라에 살고 싶소
뚜라 버마행동 대표
무료진료소에서 만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슬픔
최충언 구호병원 외과의사
겸손하게, 늘 처음처럼
하승수 제주대 교수

86 다섯 살 공감이 걸어온 길

94 한눈에 보는 공감살림

96 후원 안내

97 기부자이야기
기부자 희망메세지
기부자편지

102 함께하는 사람들

공감의 5년은 희망의 기록입니다.
책상 하나에 변호사 한명으로 시작한 공감은 이제 일곱명의 변호사가 이끌어가는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직은 크게 돋보이지는 않지만 공감사람들이 동분서주 만들어낸 작은 희망은 '씨앗 속 열매' 처럼 무수한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공감에게 법은 꿈꾸는 '열림과 열정' 의 도구입니다.
공감은 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생존과 자존' 의 열쇠가 되어주지 못하는 법의 현실,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공감의 법적 실천은 '법의 지배' 를 이루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의 지배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일상을 돌보는 법을 추구합니다. 법의 언어를 바꾸고, 법의 관습, 편견과 통념을 깨뜨리며 새로운 법의 길, 법의 정신을 지향합니다. '법의 지배' 의 모든 과정에 '사람' 과 '인권' 이 기억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가장 희망적인 단어인 인권, 그 인권의 눈으로 법을 실천하며 법이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사회만이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에는 법이 '정의와 보살핌' 의 수단이 되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의 문법이 달라지기를 꿈꿉니다.

# 공감의 5년은 희망의 기록입니다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공감은 법을 희망의 씨앗으로 만듭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고, 주목받지 못했던 개인과 집단에게 법은 보이지 않던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과 시민적 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인권의 경계를 확장할 뿐 아니라 '인권' 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인간' 의 범주와 동심원을 넓히면서 '인권의 지도' 를 바꾸는 일입니다. 새로운 인권의 지도는 법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의 일상, 그 구석구석을 바꾸어나가는 치열한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은 '일이 생긴 그 자리' 입니다. 공감은 난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철거민과 비정규직노동자 등 세상의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 에 뛰어가서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권의 경계, 법의 경계, 그리고 현실의 경계, 그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건' 을 만들어갈 때 법은 약자이자 소수자로 남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정의와 보살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경계에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과 인권의 경계를 넓히고 그 경계를 '재구성' 하는, 보다 과감하고 사려깊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공감이 되기를,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넓혀가는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감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법의 지배' 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바꾸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람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용기와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희망은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낮게 낮게" "누구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활동하겠다." "내일이 아름다운 것은 내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희망 때문"이라는 공감사람들의 열정에서 시작합니다.

공감 여러분들이 걸어온 희망과 도전의 길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공감이 달려가는 모든 현장마다 인권의 나무가 한그루씩 심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포기에 맞서야 한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4월입니다.

공감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여성 · 장애인 · 이주노동자 · 난민 · 노인 · 아동 ·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관행,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선 및 연구조사, 공익소송, 법률자문, 인권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희망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아 마음 한 켠이 꽉 막힌 듯합니다.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고, 고용지표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한 장애인들에게는 소위 '시설병' 이 있습니다. 오랜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은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어떠한 '꿈' 도 꾸지 못하는 무기력과 체념의 습성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러한 무기력과 체념의 습성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쉽게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한 부분이고 자연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념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타인을 외부공간으로 추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도 고립된 개인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타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감(共感)' 의 사전적 의미는 "일체화나 동일화와는 다르며, 공감하는 대상과 자기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상과 자기의 심리적인 동일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와 아픔에 공감하고, 변호사들도 이에 공감하여 변호사들의 '공익법 활동' 이 보다 활성화되고, 공감의 공익법 활동이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감의 5년간의 한걸음 한걸음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기부자님들, 공익단체 활동가님들, 법조 선후배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림

# 수줍은 청년의 얼굴, 공감

**박용현** | 한겨레21 편집장

#1

2005년 1월 6일 아침, 미국 워싱턴 DC의 거리는 차가웠다. 우리 일행은 G 스트리트 945번지의 한 허름한 교회로 들어섰다. 지하 강당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2백여 명의 노숙인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파란 눈의 백인부터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등 인종도 다양한 그들은 추운 겨울 워싱턴의 거리에서 집 없이 방황하는 처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교회에서는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이 시작됐다. 노숙인들을 상대로 웬 법률 상담?

이 교회는 '노숙인을 위한 워싱턴 법률지원센터'와 연결된 현장상담소 가운데 한 곳이었다. 1987년 출범한 이 법률지원센터는 노숙인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단체다.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인 빚 문제, 일자리 혹은 집을 구하는 문제, 각종 사회복지 수당 문제, 정신·심리치료 문제 등 당장 닥친 어려움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로비 활동까지 노숙인을 위한 온갖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작은 로펌'이다. 우리 일행의 목적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미국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찾아보려는 것이기는 했지만, '노숙인을 위한 로펌'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더구나 5명의 변호사(현재 9명으로 늘었다)가 이곳에서 전업으로 일하고 있다니! 또한 대형 로펌이나 정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후원자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워싱턴에는 이밖에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빈곤층 지원을 위한 법률센터, 학대당한 어린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익 변호사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의 손길이 노숙인에게까지 미쳤고, 그 역사가 벌써 20년을 맞은 것이었다. 노숙인을 위한 워싱턴 법률지원센터 사무실을 나서며, '귀국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률 단체들의 설립을 촉구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2

그해 여름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학 동기인 황필규 변호사와 연락이 이뤄졌고 '공감'을 처음 알게 됐다. 내가 염원했던 법률단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반가웠다. 공감 사무실을 방문해 여러 변호사들과 수인사를 나누고, 취재차 자주 찾아오겠노라 얘기했다. 머지않아 취재 현장을 떠나 팀장을 맡게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 팀 기자들이 취재하는 주요 사안들 속에서 수시로 공감의 힘찬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필규 변호사

2007년 여름 베트남 여성 투하(당시 24살 · 가명)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스무살에 47살 한국 남자와 결혼해 낯선 땅에 온 투하는 딸 둘을 낳았지만, 남편은 어린 딸들과 함께 이혼했다던 전처에게로 가버렸다. 투하는 '현대판 씨받이'였던 것이다. 그는 전화번호도 집도 바꿔버린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시작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소라미 변호사는 공감에서 일한 5년 동안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았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 투하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지만, 투하는 항소할 예정이다. 소 변호사는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악용되고 유린될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내 한계도 많이 느꼈지만 어떻게든 싸워서 꼭 이겨야겠다는 투지가 발동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취급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해준 공감이 고맙다.

소라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의 상식 속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리 잡은 일들이 있다. 그런 비상식을 바로잡는 데는 수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른바 복지시설 문제가 그런 경우다. 성람재단은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되기까지 한 복지시설이다. 비리뿐 아니라 이곳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열악한 생활 조건이 아무리 폭로돼도 감독기구인 관청은 꿈쩍 않았다. 반면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니냐"며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많다.

염형국 변호사(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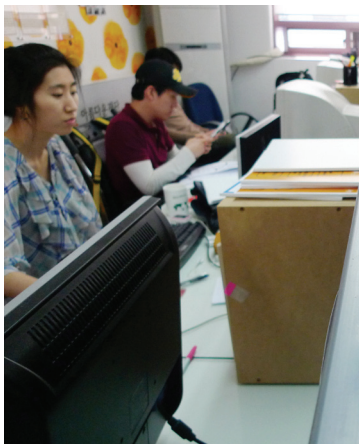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시설을 만들었으면 인간다운 삶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게 아니냐"는 상식적 주장은 질기고 질긴 외침 없이는 반향을 얻지 못했다. 성람재단 시설 출신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100일 넘게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에게 벌금이 매겨지고 김정하 활동가는 구속 직전까지 갔다. 이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김정하 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벌금 탕감을 위한 후원주점이 벌어졌던 때가 생각난다"며, "김정하 활동가가 광화문 시민광장에 어둑어둑해질 무렵 석방되어 나타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21〉 편집장으로 온 뒤에도 공감과의 인연은 이어졌다. 〈한겨레21〉은 '여군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을 추적 보도했다. 직속상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스토킹을 당한 박 아무개 대위가 오히려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보도가 나간 뒤 공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군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원에 나섰고 박 대위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질 당시 〈한겨레21〉 지면에 박 대위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는 차혜령 변호사의 모습이 큼지막하게 실렸다.

차혜령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그리고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은 희대의 비극이건만, 대부분의 언론은 반짝 관심으로 끝났고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수사를 결론지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돈을 버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비극의 진실을 캐내고 재개발 과정의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가들은 흔치 않다. 이번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 참여한 장서연 변호사는 "분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잠도



공감사무실 전경

안 오는 나날을 보냈지만, 진상조사단이나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많은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감동할 때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느낀 감동은 낮은 자들과 공감하는 법률가만이 누릴 수 있는 한 조각 사치스런 감정일 것이다.

법이란 오지랖이 넓은 놈이다. 누구든 어떤 삶을 살든 법은 그의 가장 남루한 일상의 한 조각에까지 힘을 미치고, 그의 한 끼와 하루 잠자리를 더 아늑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법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돈이 오가는 문제에만 관련된 것도 아니다. 어쩌면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난처한 자리에 처한 이들에게 절실한 게 법일지 모른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이며 소리는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소라미 변호사가 소개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말이다. 법률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달려가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건 이 각박한 땅에서 커다란 위안이다.

## #3

김영수 변호사

2009년 3월 로스쿨이 본격 출범했고, 1기 신입생들이 예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로스쿨 입학시험의 높은 경쟁률에서 다시 확인됐듯,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오랜 역사를 지닌 현상이다. 그 밑바닥엔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 어릴 적 장래 꿈을 묻는 어른들의 질문에 "판검사요"라고 답하던 아이들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으레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답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건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것으로 취급받게 됐다. 심지어 대학 시절 '민중'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던 친구들조차 법조인이 된 뒤에는 순진한 생각을 거둬버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실망도 컸다.

정정훈 변호사

그런데 공감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순수하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착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변호사가 됐다"는 김영수 변호사는 아직도 수줍은 청년의 얼굴이다. 표정이나 말투, 매무새 어디서도 법조인 특유의 권위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외환위기 당시 친구들과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던 정정훈 변호사는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 싫고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사법시험에 도전했다고 한다. 비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박한 보수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소박한 꿈들을 키워가는 공감은 풍요로운 온실 같은 곳이다.

생각해보면, 공감의 실험이 소중한 것은 그들의 공익 활동 자체에만 있는 건 아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는 이들과 동료 법조인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게 해준다. 더불어 어릴 적 법조인을 꿈꾸며 생각했던 포부들도 떠오르게 만들어 미소짓게 한다. 공감 변호사들의 그 선한 얼굴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사회적 기여일 터다.

#4

공감에는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변호사 7명과 간사 2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일한다. "변호사 한두 명 없어도 티가 안나지만 간사는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티가 난다"(전은미 간사)고 한다. 전 간사는 홍보와 인턴 관리 · 교육을 담당한다. 모금과 기부자 관리를 맡는 권회 간사는 공감의 버팀목인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제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은미 간사

권회 간사(왼쪽)

공감의 조직 운영을 맡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는 "변호사들 간에 사법연수원 기수나 나이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와 간사 사이에도 업무의 내용에만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운영된다"고 설명한다(황 변호사도 편의상 내부 업무 총괄을 할 뿐 대외적 대표 권한은 없다고 한다). 위계 구조 없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 평등한 사회조직. 공감이 기획한 또 다른 차원의 실험이다.

구성원들에게 5년 뒤 공감의 모습은 어떨지 물어봤다.

*"그동안 공감을 거쳐간 인턴 친구들 두서너 명이 공감에서 변호사로 함께 일할 수 있고,*
*지방에도 공감과 같은 단체가 한두 곳 생겨나면 좋겠다." – 김영수 변호사*

*"꼭 규모가 커지거나 속도가 빨라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무던하고 여전히 희망을 그리며 '공감스러움'을 유지하는 곳이 됐으면 한다." –전은미 간사*

*"사회적 이슈 중에서 법 · 제도 개선과 연결되는 사안을 정확히 뽑아 공익소송으로 풀어내는 혜안과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다. 공감의 한 발자국, 공감 구성원의 한 발자국이 큰 울림을 갖게 될 것 같다." –소라미 변호사*

*"지방에 지소를 내면 좋을 것 같다." –장서연 변호사*

*"지금까지의 5년은 첫 번째 실험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특해하며 한 수 접어주고 봐주셨다면,*
*이후의 5년은 내용과 치열함으로 공감이라는 모델의 성공 여부가 테스트되어야 하는 기간일 듯하다." –정정훈 변호사*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공감의 평양 지소가 생기고, 제주 지소가 생기고…….*
*나는 그곳에서 흰머리 날리며 열심히 기부자님들께 감사편지 쓰고 있지 않을까." –권희 간사*

## #5

소박한 바람들이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 자존심 강한 포부도 숨어있다. 그래서 나는 상상해본다. 5년 뒤 한 외국 기자가 공감 사무실을 방문할 것이다. 그것이 1월 초라면 서울의 거리는 차가울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추위를 달아나게 만드는 환한 미소와 웃음소리가 그를 맞이할 것이다. 아시아 공익변호사그룹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공감에서 그는 커다란 영감을 받고 돌아갈 것이다. 그는 얼마 뒤 나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공감을 회상하며 이런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박용현**님은 법대 졸업 후 90년대 초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드디어 평소 꿈꾸워 오던 한겨레에 입사하였고 2008년부터는 한겨레21 편집장을 맡아왔다. 기자생활 중 돌연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2005년 미국 노트르담 대학 로스쿨로 떠났다. 1년 만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돌아온 그에게 후배 기자들은 '독하신' 편집장님이라는 경외와 질시 어린 질타를 날렸다. 그런 독특한 이력이 바탕이 되어 그는 공감이라는 실험 공간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품어오던 차 공감 5주년을 맞이하여 스스럼없이 애정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 공감이 도대체 뭐가 특별한데?

2004

2009

## 또 하나의 공감은 있다! 없다?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 별관 한쪽 구석. 개조된 베란다를 차지하고 4명의 변호사와 1명의 간사가 '공감' 하겠다며 희망의 둥지를 틀었다. 2009년 1월, 7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 그리고 1명의 펠로우와 20여명의 인턴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뭐가 그리도 바쁜지 정신없이 사무실을 들락거린다. 이번엔 독립된 회의실에 인턴자리도 10석이나 있다. 도대체 '공감' 에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공감 특별한 세상' 이란 제목의 TV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아는가? '정책공감' 이라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주간지도 있다. 또 '장애여성 공감' 같은 단체도 있으며, 도봉구에는 '공감떡집' 도 있다. 전국에 '공감' 이라는 이름을 가진 업체가 최소 100여개이다. 그런데 궁금하다. 공감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도 특별하게 대우받는 걸까?

## 비영리 + 전업 + 공익 + 변호사 + 그룹의 절묘한(?) 조합

홈페이지의 문구처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공감이 그 출발부터 미국식 공익변호사단체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이다. 미국에는 공감 같은 변호사단체가 널려 있다. 심지어는 장애 문제만을 다루는 단체 하나에 수십 명의 변호사가 상근하기도 한다. 솔직히 부럽다. 변호사가 넘쳐나고, 수임료를 팍팍 낮추고, 포드재단처럼 공익변호사들을 확실히 밀어주는 재단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지려나?

국내에도 공감 변호사들처럼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은 많다. 그러나 완전한 '비영리' 활동이 아니거나 '전업'이 아니거나 혹은 '그룹'이 아니다. 따라서 공감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유일무이'를 적절히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일이 몰리고, 과대 포장되기도 하며, 공감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부담이 된다. 더구나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비교대상조차 없다. 또 다른 공감의 부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 현장에서 출발하여 경계를 넘어 변화로,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 "공감 변호사들은 변호사인가요, 인권운동가인가요?".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답은 두 가지. "변호사인권운동가이지요. 변호사면 어떻고 인권운동가면 어떤가요"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그리고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이라는 공감의 지향은 공존할 수 있다. 현장지원활동과 정책개선활동, 이 둘의 기계적 조합은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아니다.

공감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소수자의 취약성', 차별금지라는 수식어로만 대변되는 '형식적인 평등 추구', 개인의 문제로 파악되지만 사회 전체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자그마한 변화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감의 지향점이자 활동방식이다.

## '이견은 많지만 오해는 없는'
##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한 공동체

대표도 없고 명망가도 없다. 공감 구성원 9명은 모두 헌법상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모든 차별사유의 차이를 불문하고 또 업무의 내용 및 사법연수원 기수를 불문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5년간 가꾸어왔다. 공감이 지향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위하는 사회공동체'를 안에서부터 구현하고자 한다. 효율성? 물론 떨어진다. 하지만 효과성은 다른 문제다. 공감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 컵 닦고 있는 변호사, 복사하고 있는 변호사, 문 바로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변호사, 소송자료 도장 찍고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글쎄. 그게 뭐 특별하냐고? 정답이다. 그게 공감이다.

공감 구성원들이 가장 듣기 거북한 말 두 가지. "참 훌륭하시네요", "이러다가 정치하실 건가요?". 공감은 거창한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활동할 뿐이다. 급여는 업계 최저지만 업무만족도만큼은 업계 최고를 자랑한다. "우리만 행복해도 되는 거냐?"는 한 구성원의 말은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 돼버렸다.

공감의 장기적인 전망에서부터 연간보고서 표지 색깔과 그 재질에 이르기까지 공감의 논의는 온갖 수준을 넘나든다. 그러나 손쉽게 의견일치를 보는 법이 없다. 웬만한 조직 같으면 상호 불신이 쌓이거나 편 가르기가 생겼을 법도 한데, 주고받는 언쟁 속에서 이해와 신뢰가 쌓인다. 물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 네트워킹 네트워크, 공감은 공감이 아니다???!!!

공감은 영역별 혹은 사업별로 국내외 다양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주와 난민 영역을 예로 들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계한인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거의 모든 변호사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각 단체에 둥지를 마련하고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 이주와 난민 관련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인권 · 사회단체와 느슨하지만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법제 개선, 소송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정책협의와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이주기구, 국제난민기구 등 정부 혹은 정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필리핀-일본-한국 이주변호사회 네트워크, 아태지역 난민의 권리 네트워크 등 여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직접 참여해 국내외 현안에 공동대응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감 활동 중 절반 정도에는 공감의 이름이 없다. 공감은 어떤 인권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를 우선 파악하고 이에 형식을 불문하고 결합한다. 단순한 회원, 위원, 실행위원, 자문위원일 수도 있고 공감 차원의 결합일 수도 있다. 때로는 다소 애매하지만 자원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결합하기도 한다. 공감은 문제해결을 목표로 때로는 지도자로서, 전문가로서, 혹은 실무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위를 혼합한 형태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변화무쌍함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꾀한다.

## 공감은 공익활동 중매쟁이?

공감 초기 구성원들이 모여 이야기 한 게 있다. 로펌 및 변호사 같은 법률가와 법대생 같은 예비법률가들과 함께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그들을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공감의 지향이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인 만큼 공감 자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예비) 법률가의 동참을 유도하여 공감이 추구하는 인권활동의 계획, 진행과정, 그리고 그 결과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과연 공감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는 안팎으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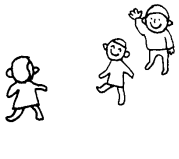
5년이 지난 지금, 공감은 다수의 로펌에 공익소송을 중개하고 있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공동 법률교육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로펌 공익활동 담당변호사 간담회를 주관하기도 했으며, 자체 대학생 인턴쉽을 통해 약 200명에 가까운 인턴을 배출했다. 또한 로스쿨과 공익법 프로그램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대학생과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의 인권법캠프를 개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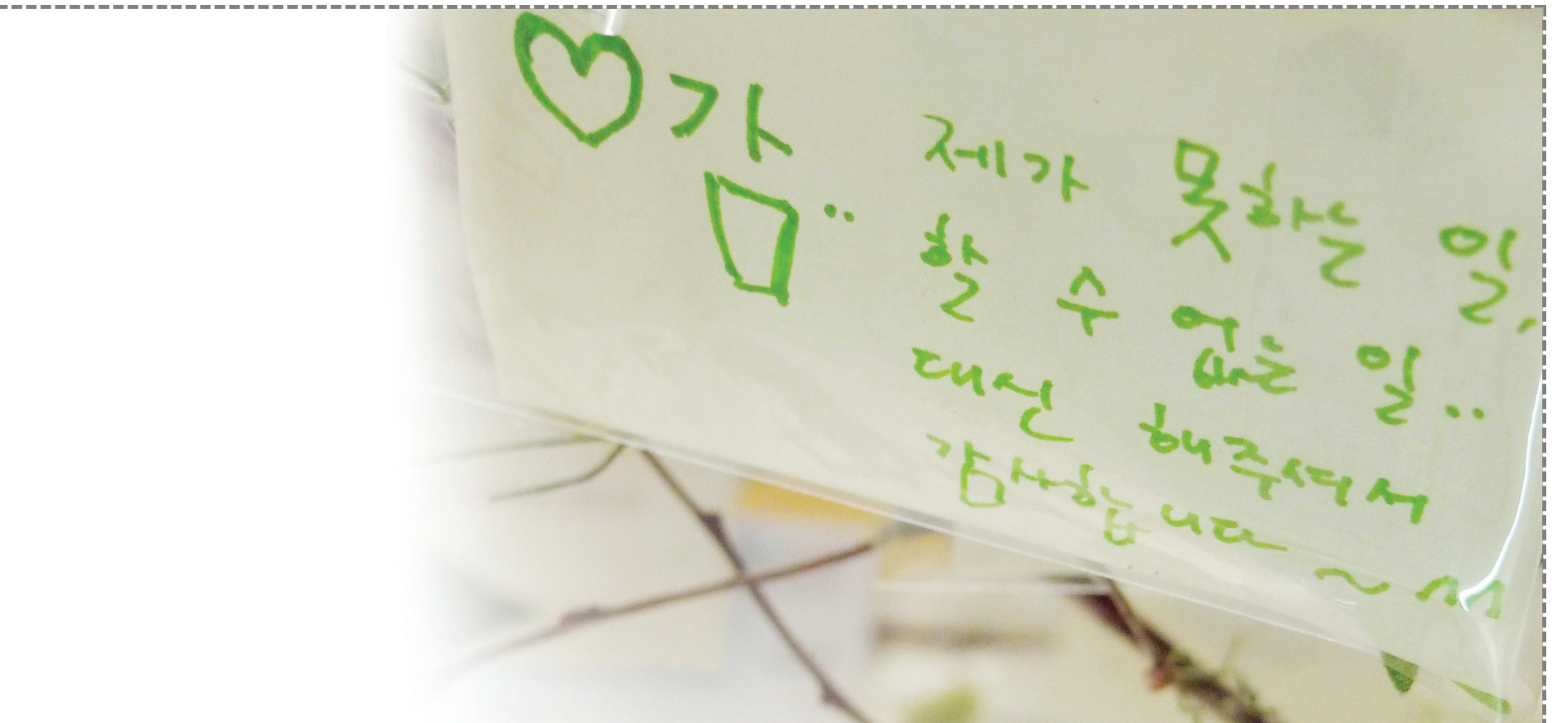
## 개인들의 아름다운 기부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공감은 100%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이다. '기부로만 유지되는 변호사사무실이 운영 가능할까?' 하는 주위의 걱정 속에서도 5년 동안 임금체불 한 번 없이 꿋꿋이 버텨왔다. 달리 공감을 위해 모금을 해주는 단위나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 7인과 간사 2인이 모인 9명의 공감 구성원이 모두 모금담당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금한다!'

공감 초기 수입을 보면, 개인기부 비중은 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50%에 육박한다. 그 뒤에는 한겨울 사법연수원 마당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변호사 송년모임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서 모금행사를 벌이는 적극성이 있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모금계획 수립 및 기부자 관리를 체계화했다. 혹자는 말한다. "변호사들이 돈을 번 다음 좋을 일 할 생각을 해야지, 손부터 벌리는 건 좀……". 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역시 돈을 벌면서 짬짬이 공익활동을 하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도 수많은 과제를 남겨놓은 듯하다.

공감은 개인들의 풀뿌리 모금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을 꿈꾼다.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공감이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활동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적인 면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과 미국 등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공익인권변호사 단체들은 외국 재단이나 종교단체 혹은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또 미국의 단체들의 경우, 큰 재단이나 거액기부 혹은 대규모 모금행사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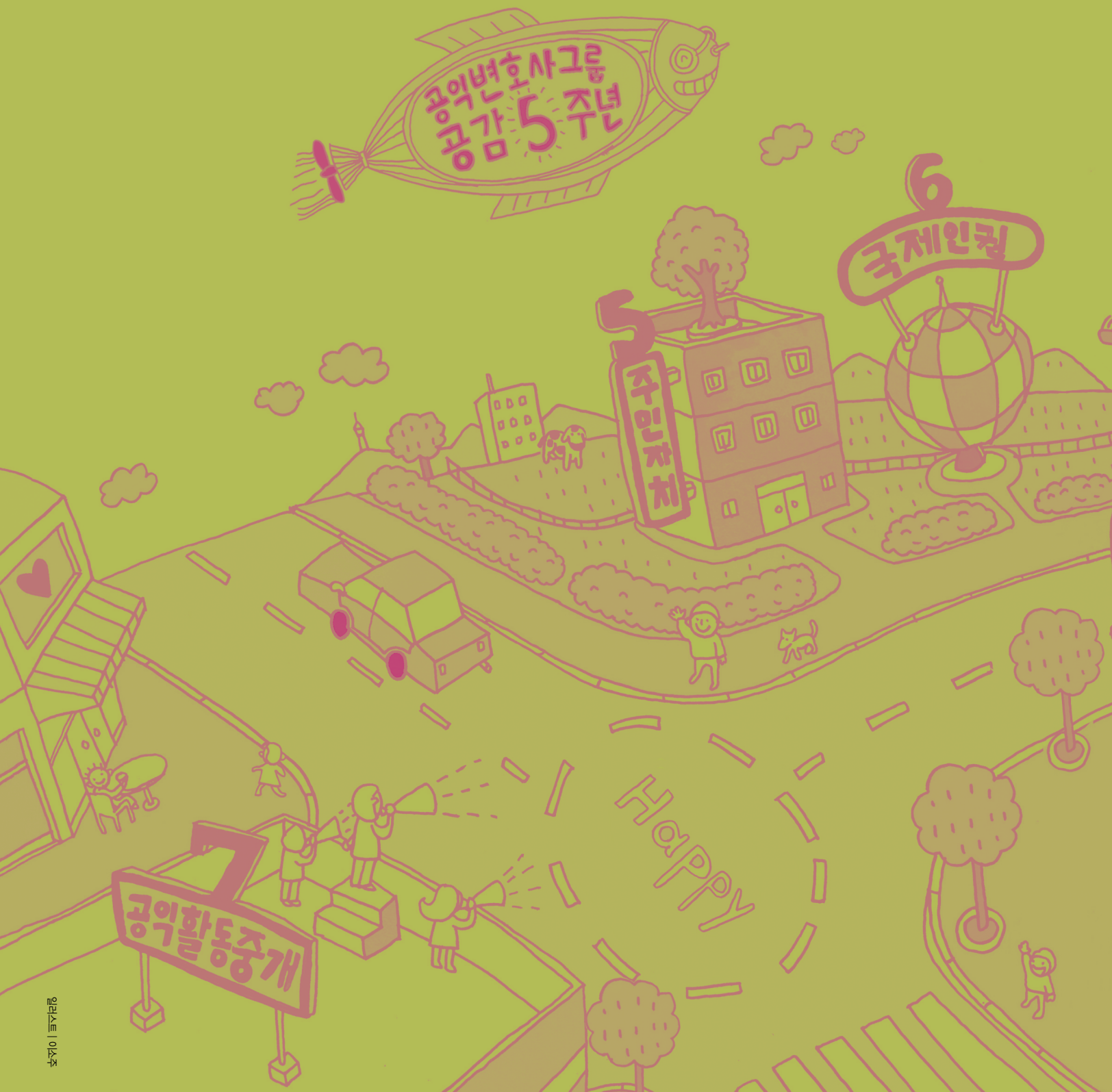

## 왜 아직도 공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하다. 공감은 활동을 시작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많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공감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다. 먼저 공감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다. 또 공감의 활동과 관련해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고자 해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해 공감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활동을 통해 인권현실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활동하면서 함께했던 개인, 단체들과 공감하고 그 느낌이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너무 일찍 유명해지면 그 만큼 일찍 늙잖아요". 어느 날 공감 구성원 중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바로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공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연간보고서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기본 홍보 매체로 한다. 이를 통해 각종 기고글 및 인터뷰를 싣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활동일 수 있다. 화려한 구성을 자랑하거나 유명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보다는 사람을, 기술보다는 느낌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인턴, 기부자, 단체 활동가 등 공감을 접해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감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공감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지막하게, 하지만 무게있게 외쳐본다.

##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또 하나의 공감을 꿈꾸며

공감은 여러 모델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은 공감의 작은 부분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가꿔나갈지 고민한다. 공감의 모델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널리 퍼졌으면 한다. 더 바란다면, 오히려 공감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자라나 "공감, 당신들이 이런 한계와 문제가 있어"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또 하나의 공감을 꿈꾸며…….




일러스트 | 이소주

영역별 활동 에세이

# 희망을 변론하다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와 난민
빈곤과 복지
주민자치
국제인권
공익활동중개

# 희망을 변론하다

## 여성 인권

**| 주·요·활·동 |**

-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민 · 형사상 소송지원
- 국제결혼중개구조 베트남 · 필리핀 현지조사 및 결혼중개업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2005년~현재)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 및 양육권 보호를 위한 소송지원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2007년 7월)
- 다문화가족지원 법제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교육 전국 지원
- 재생산권 피해 베트남 여성 대리 가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군대 내 스토킹 피해 여군 대리 형사소송 지원 승소(2008년)

## 나의 사부님, 김민정 선생님!!!

지난 5년간, 공감의 수 많은 여성 인권 활동 중 어느 것 하나 공감 홀로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주제별, 이슈별로 기꺼이 길잡이와 길동무가 돼 준 단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공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초기인 2004년과 2005년, 현장에서 만났던 활동가와 인권단체는 저와 공감에게 '사부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 한분이 바로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이주여성과 함께 울고, 웃고, 흥분하며 화내는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그래,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 했답니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5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용역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진행했던 국제결혼중개시스템 현지 조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느라 연구자들은 두개 조로 나뉘어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었죠.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이주여성의 삶과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보여주고 들려주려 했습니다. 두 세 건의 빡빡한 인터뷰 일정을 마친 후 새벽까지 이어졌던 술자리에서도, 선생님은 저를 쉬이 놓아주질 않았죠. 아! 덕분에 저는 무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라'는 선생님의 진심어린 기대를 느낄 수 있었기에, 전 그저 따를 수 밖에요.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에서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눴던 그 모든 것은, 이후 '국제결혼중개업규제제도 개선',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사회통합이수제에 대한 반대 활동'에 이르기까지 내내 저에게 지표와 자양분이 됐어요.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무안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2005년 초였던가요. 전 · 진 · 상 복지관의 이금연 전 관장님께서 주재하셨던 '인신매매논의를 위한 작은 원탁 토론회'에 참석해서 채 여물지 않은 저의 고민을 주저리주저리 풀어놓았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또 있어요. 몽골 결혼 이주여성의 소송 지원 차 방문했던 법원 복도에서, 소송 상대방인 한국인 남편과 언성을 높이고 싸웠던 일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5년간 현장의 단체 · 활동가들이, 공감이 파트너로서 성장하기를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시스템 현지 조사 당시 함께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김정선(이대 여성학 박사과정), 김재원(전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코디네이터),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선생님들과는 지금까지도 '이주여성인권포럼'이라는 공간을 통해 계속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부터 최근에는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이슈까지, 이주여성의 인권을 화두로 다양한 고민과 행동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주제들이었어요.
아마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함께 고민하고, 수다 떨고, 행동할 수 있는 든든한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니, '내일 갈 길도 즐겁고 행복하겠구나' 하는 기대가 앞선답니다.

**글 | 소라미 변호사**

활동가의 **쓴소리, 단소리**

**김민정** |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활동가

## Q ___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004년 9월 어느 날, 이주여성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던 나는 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한 번도 만나 본적이 없는 공감의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소송이었다. 당시 나는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의 입을 통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확인한 직후였다. 실망스러운 경험으로 너무나 흥분한 나는, '엉엉' 울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음 약한 그녀는 선뜻 그 사건을 맡아 주겠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공감의 그녀, 소라미 변호사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 Q ___공감과 함께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4년 9월 공감 소라미 변호사를 만난 이후, 이주여성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소라미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서 나의 정제되지 않은 경험들을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담아내는 능력들, 이 모든 게 개인적으로 많이 의지가 됐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반인권적 행태로 인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공감이 있었다. 그리고 법률가, 현장활동가, 학자, NGO관계자들이 효율적인 분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의 활동에 희망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몇 년 전,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던 기사 몇 줄을 가지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중국동포 여성들을 수소문해서 만날 수 있었던 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비록 그 여성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작은 기사를 바탕으로 직접 경찰서에 연락해 피해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소라미 변호사의 모습에서, '이 사람은 정말 듬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한국인 남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국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일 역시 공감 소라미 변호사가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잘 알지 못하는 한 여성을 위해 가깝지 않은 거리를 전철과 택시를 갈아타고 같은 법원을 몇 번씩 찾아가는 모습을 떠올릴 때면 안쓰럽고 미안하다. 이렇게 공감에 의지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한 둘이 아닐 텐데, 그 기대감이 공감 변호사들에게 '무거운 짐' 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Q ___공감과 함께 일하며 아쉬웠던 점, 안타까웠던 점은?**

아쉬웠던 점이나 안타까웠던 점은 전혀 없다. 소외 받는 이들과 온전하게 함께 하려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감의 활동은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

소라미 변호사를 통해본 공감은 편한 존재이다. 그래서 항상 미안하다.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 , '무슨 상담소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 봐야 할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어쩌랴.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으면, 그래도 떠오르는 곳이 공감뿐인걸. 지금도 '공감' 하면 '든든함' 이란 표현이 떠오른다.

**Q ___나만 아는 공감 변호사에 대한 뒷담화(일화)**

2005년 '국제결혼중개업' 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기위해 베트남 호치민을 함께 방문했을 때,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입국 전에 함께 머무는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나는 작은 오토바이 뒷좌석을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 타고 이동해야 했다.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한국인 중개업자 때문에 좀 긴장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나의 긴장은 웃음으로 변했다. 달리는 오토바이 맨 뒤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나와 달리, 소 변호사는 오른손에 카메라를 번쩍 들고 자신의 모습을 찍으며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는 게 아닌가……. 여러 장 찍었는데 볼 만한 컷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 장애 인권

**| 주 · 요 · 활 · 동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활동(2004년~2007년)
- 전국 장애인단체활동가 법률학교 진행(2005년)
- 장애인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에 대한 보험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2006년)
- 장애인에 대한 청계천 접근권 차별에 대한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년~2008년)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연구 참여(2007년~2009년)

### 박옥순 국장님께

Going Gain 희망을 변론하다 2009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곧 개나리와 진달래도 꽃을 피우겠네요.
제가 처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찾아갔던 2004년에도 한창 봄꽃이
피던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단체 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 어리버리하던
저를 장애우 연구소 간사님들은 너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제게 그래도 변호사랍시고
여러 법률 관련 업무를 맡겨주셨어요.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기에
짧은 법률지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법률상담도 하고,
의견서도 작성하고, 소장과 고발장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입법안까지 만들게 됐지요. 간사님들을 쫓아 집회에 다녔던 기억,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기억,
끝날 줄 모르던 저녁 회의 후 빼먹지 않았던 뒷풀이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과 정책실에서 만났던 간사님들인
박옥순, 박숙경, 임소연, 김정하, 여준민 이들 독수리 5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장애인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금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모두 나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요.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생활자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독수리 5자매를
만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김영옥 김영욱 김영은 김영익 김영주 김영훈 김예영 김용비 김용태 김용호 김용환 김웅재 김원경 김유라 김유련 김유진 김유채 김윤선 김윤영 김윤한 김윤희 김은경 김은권 김은미 김은아 김은엽 김인철 김재년

또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고요.
만 5년 동안 했던 장애인 인권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던 일 2가지를 꼽자니 모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5자매와 함께 했던 활동이네요.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장애인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법률안 공청회 참여, 법률안 수정 작업, 법안 안내서 작업, 법안에 대한 당사자 교육, 국회의원 설득 작업 등 법률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했었네요.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던 날, 너무 기뻐서 함께 환호하고 서로 축하해주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은 국내 입법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하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이어서 더욱 빛나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장애인차별 상담, 인권위 진정을 위한 해설 자료집 작업,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 장차법 이행 점검 토론회 등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연구조사활동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응한 조사와 고발 등을 통해 복지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축을 옮기게 만들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장애인에 관한 국가 단위의 보고서를 만들어 실태를 보고하고 다양한 정책개선방안들을 내놓기에 이르렀지요.

활동가의 쓴소리, 단소리

**박옥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Q ___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공감의 창립멤버인 염형국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지요. 제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였을 때, 공감 변호사로 연구소에 파견을 왔어요. 그때 만남이 첫 인연이지요. 염 변호사, 당시에 제 느낌은 편안한 웃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안을 집중하여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었지요. 무엇보다도 겸손한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법률가는 전문가로서 잘난 척할 거라는 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걸 깨뜨리셨지요.

**Q ___공감이 함께 일하고 있는 단체와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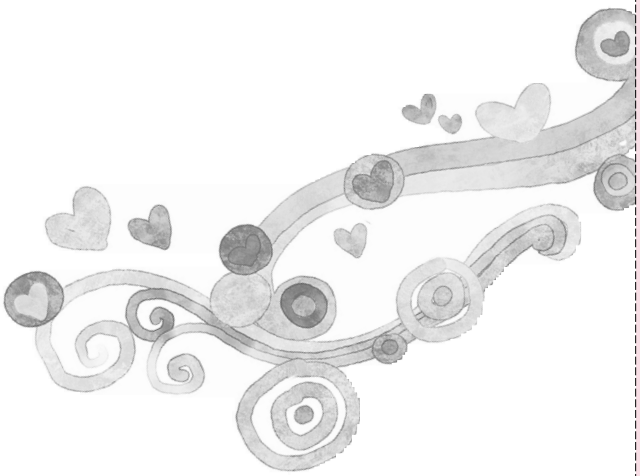
강력한 연대. 특히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회비를 내는 회원단체이고, 실제로 법률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지요.

**Q ___공감과 함께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성람재단과의 투쟁 과정에서 100여일 동안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우리 농성단을 철거하고, 경찰은 그것을 비호했죠. 기자회견을 할 때 염형국 변호사는 어느 활동가보다도 분노하며, 나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공권력을 지적하는 염형국 '변호사' 가 아닌 염형국 '활동가' 의 모습이었죠. 그 이외에 시설 내 인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저는 운이 좋게도 공감에서 장애인 영역을 맡게 됐고,
그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룬 성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뿌듯합니다.
장차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보다 많은 상담과 진정, 소송이 뒤따라야하겠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앞으로도 박옥순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발바닥 5자매께서 저의 무디어져 가는 인권 감수성을 일깨워주시고, 제대로 활동하라고 끊임없이 다그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구요.

글 | 염형국 변호사



과 관련된 수많은 고발장, 법률의견서, 토론회, 법개정안 작업, 외국의 관련 법률들을 해석하여 제공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탈시설 운동의 원천이 되었던 옴스테드 판결문을 번역하여 제공했는데, 이 것은 탈시설 운동을 기치로 내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에는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 Q ___공감과 함께 일 하며 아쉬웠던 점, 안타까웠던 점은?

꼭 말해야 한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차별 상황에 관한 관점 확립 및 적극적 해석의 문제가 아쉽지요. 좀 더 깊이 있게 파보거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장추련에서 여러 토론회나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장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 아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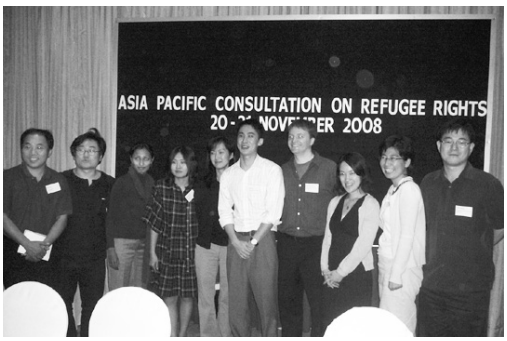
## Q ___앞으로 장애 영역에서 공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체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과 같은 전문 법률지원 구조를 만들었으면 해요. 그만큼 공감은 부문 및 영역별로 분화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현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문제에는 다소 소원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하구요.

## 이주와 난민

**| 주 · 요 · 활 · 동 |**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난민법 등 관련법률 재개정 활동.
-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위법한 출입국 단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년~현재)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및 지역별 법률교육(2006년~ 현재)
-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2007년)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헌법소원 청구(2007년)
- 여수외국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참여(2007년)
- 유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참여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승소(2006년)
- 버마민주활동가, 중국민주당원 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2008년)




###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

2009년 4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여성의 상의가 밀려 올라가서 상반신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아랑곳 않고 단속차량까지 끌고 가서는 여성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관계당국. 이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입니다.

현재 공감의 활동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이주와 난민' 영역입니다. 마치 무법지대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변호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없이 방치돼 왔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차별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그들을 일관되게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단순히 악덕 고용주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별적 차원을 넘어서 정부정책 차원의 문제가 됐습니다. 차별적인 제도 아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일삼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감은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이주노동자들의 법률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단체파견활동과 법률상담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한 법률매뉴얼을 제작하고, 활동가를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 사업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장변경 3회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활동가의 쓴소리, 단소리

**마웅저** | 버마민주화활동가

## Q ___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005년 한국정부가 난민인정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공감 변호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공감 변호사님들의 첫 인상이 어땠느냐는 질문에)세상에서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 Q ___공감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너무 많아요. 그중 하나를 꼽자면, 황필규 변호사님을 만난 일이죠. 2005년에 신청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2008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는데, 그때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고, 변호사님께 저희의 요구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께서 웃으시며, "능력 없는 변호사를 잘못 만났다"고 하셨어요.(웃음) 그때를 생각하면 변호사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웃음)

## Q ___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국 시민단체들이 백화점식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도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워요. 특히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공감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보고, 배우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강제근로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또 2009년에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한편, 공감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서울사무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에서 중국인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이는 국내 최초로 중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공감은 개별적인 난민신청자들의 소송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들의 처우 문제, 심사절차의 개선 등 난민법제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 장서연 변호사

**Q ___지난 5년간 공감의 변화는?**

변호사님들이 점점 더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웃음) 제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성공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와 관계있는 난민인정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는 난민인정 문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공감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결국 좋은 결실을 얻게 됐죠..

**Q ___앞으로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전화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답장도 보내주시고요.(웃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계속해 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이주민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거예요. 공감과 저희 단체가 앞으로도 함께 하면 좋겠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빈곤과 복지

**| 주 · 요 · 활 · 동 |**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변호사 파견 법률상담 및 지원(2004년)
- 노숙인 금융피해자 및 파산자 법률상담 및 법률학교(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2005년)
- 『노인학대예방 법률메뉴얼』발간 및 법률교육(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2005년)
- 『아동학대예방 법률메뉴얼』발간 및 법률교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년)
- 의료급여법시행령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2007년)
-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 2007년)
-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7년)
- 강남 · 서초 · 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2007년)
-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제작 참여(주거권운동네트워크, 2008년)
-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2008년)

구청에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설립신고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센터가 들어설 주변 학교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과정에 알게 된 더 구체적인 이유는, 노숙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 귀가길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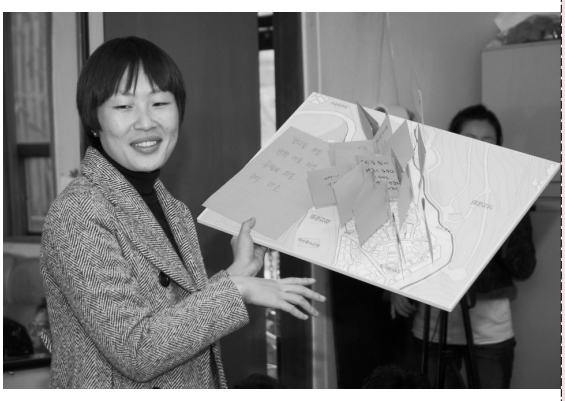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허술해 보이는 가건물일망정 공동화장실도 있고, 적게는 수 년에서 수 십 년간 사람들이 살아 왔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구청에게 그들은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살지만 '없는 주민'인 셈이지요.
주민등록수리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 투표도 할 수 없고, 자녀들도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고, 우편물도 친척집이나 다른 주소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울역 뒤 조그만 컨테이너 가건물. 5년 전 그곳에는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역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한번 씩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노숙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포차, 대포폰 등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하루 저녁 밥값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 월 10만원 내외의 쪽방 임대료 문제, 쪽방이웃 간의 분쟁, 파산 · 신용회복 상담, 노숙하다 폭행당한 사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문제. 각자 처지에 따라 상담 내용도 다양했지만,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하소연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담소를 찾는 이유가,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란 걸 안 건 법률상담을 시작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한 끼의 식사, 편안한 잠자리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이들의 자존을 해치지 않는 공동체의 배려와 관심 그리고 지지가 아닐런지요.

**글 | 김영수 변호사**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Q ___공감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함께 책을 만든 것이죠. 재개발에 관한 소책자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사회권 관련 활동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사회권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을 접해야 하는데, 워낙 양도 많고 어려워서 혼자 공부할 엄두가 안났어요. 예를 들어 주거권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주택법부터 시작해 임대주택법, 건축법도 봐야 하고, 각종 개발 및 토지관련 법들을 봐야 되는데, 이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서 무척 다행스러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들, 이를테면 입법과제라든지 법 개정과 같은 것들을 잘 뽑아내, 흐름대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잘 못했죠.

**Q ___소속단체와 공감과의 관계는 어떤지?**

동반자? 저는 사실 '공감'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냥 인권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단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면, 앞으로 공감이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인권 의제들을 많이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___지난 5년간 공감의 변화는?**

일단은 '다채로워졌다?' 주거권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염형국 변호사님과 의료급여 관련해서 같이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딱히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활동이 별로 없었죠.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역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___앞으로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감은 주로 인권활동가들을 만났잖아요. 사회권과 관련해 공감도 이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이 기획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재개발지구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도 그런 일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기획들이 있어야 앞으로 공감이 인권운동단체로서 좀 더 장기기획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희망을 변론하다

## 주민 자치

**| 주 · 요 · 활 · 동 |**

-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찬반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2004년)
- 전남 6개 시 · 군 예산공개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년)
- 『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참여제도 실무메뉴얼)』 제작(함께하는 시민행동, 2006년)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및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낭비액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2006년)
-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도립공원 내 위법한 인공폭포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액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2006/2007년)
-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2007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액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2007년)
- 도봉구 · 양천구 · 금천구 · 성동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부당인상에 대한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2008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많은 제도들이 시행됐죠.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복지공무원의 공금횡령,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 공사(公私)구분이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주민 대다수의 의사나 환경적 가치에 반하는 외형적 개발 및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 부정부패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시장, 군수, 의원들. 이 낯익은 모습들이 바로 지방자치 하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나 기관 역시 주민들을 위한 권익증진이나 복지제도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이 '희망'이라 합니다. 아파트공동체운동, 보육조례제정운동, 담장허물기운동, 녹지를 지키기 위한 자연학교운동, 문화유적 보존운동,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조례발의를 통한 공공의료기관설립운동, 소출력 방송을 통해 장애인부모들의 아픔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라디오방송국 설립. 그곳은 언제나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과 실험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글 | 김영수 변호사

활동가의 쓴소리, 단소리

**오관영**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Q ___공감과의 첫 인연은?

2006년 저희와 공감이 공동으로 기획해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설명한 실무 매뉴얼북이에요. 이 책 정말로 인기가 좋았어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확대 됐는데, 적시에 만들어진 훌륭한 매뉴얼북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됐고, 이제는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판을 내라는 주문이 쇄도 중입니다.

## Q ___공감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저희 시민행동에 마웅저라는 버마인 활동가가 있습니다. 마웅저씨가 작년 말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님과 함께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난민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오체투지를 같이 하는 분들이 축하를 해 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뒷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몇 달에 한 번씩 체류허가 심사를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제 그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요. 공감에서 그 소송을 진행해 줬다죠. 마웅저씨의 승리,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 Q ___소속 단체와 공감과의 관계는 어떤지?

좋은 관계죠. 그런데, 걱정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공감이 소송대리만 하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로지 소송대리에만 매달린다면 현실적으로 그 양을 소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규모도 계속 늘려야 할테고요.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동이라는 것이 매뉴얼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아, 내가 주민소송을 하고 싶을 때는 A에서부터 Z까지 이런 단계를 거치면 되겠구나' 하는 믿는 구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주민들에게 힘이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___ 지난 5년간 공감의 변화는?**

일단 사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분야도 늘어나고 시민단체들과의 접촉도 늘어나고 아마 계량적으로 비교해보면, 창립 때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공익적인 그룹이 생존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긍정적이죠. 다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려면, 공익 소송에서 승소해 그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거에요. 예컨대 시민행동에서 하는 예산감시활동이 있겠죠. 공감 변호사님들은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옆에서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Q ___ 공감에 쓴 소리 한마디 한다면?**

지금은 워낙 현장에 밀착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더 공감만의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소수자들 사이에 놓인 약자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자기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기획소송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민운동단체들은 주로 "표현의 자유를 달라, 억압하지 말아라."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운동은 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통해 논점을 다듬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공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죠. 방어만 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기획해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___ 앞으로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이 있다면?**

5년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원래 풀뿌리운동은 10년 정도는 해야 뭔가 평가할 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물론 공감이 그동안 잘 해 와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성과들을 얻었지만, 조금 더 역량을 쌓고 내용을 축적하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 국제 인권

**| 주 · 요 · 활 · 동 |**

- 버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및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2004년 12월~현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2005년 2월~12월)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공청회 제안 & 발표 (2006년 2월~12월)
-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2007년 12월~현재)
- 호주 사우드웨일즈 로스쿨 Diplomacy Training Program '아태지역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교육(필리핀 마닐라) '이주노동자와 기업의 인권책임'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강의 (2008년 10월)

## 국제인권변호사를 꿈꾸는 후배에게

안녕하신가.

얼마 전 "국제인권변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를 물었던 그대에게 늦은 답장을 보내오.

그런 말이 있었지. "법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를 물으면, 반은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나머지 반은 '국제변호사'(?)가 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공감 변호사들은 '국제'인권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국내' 인권문제도 다루고 있으니 '국제'와 '인권'에 민감한 변호사로서 모든 법대생들이 가진 꿈을 이루었다고나 할까. 국제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 NGO, 그리고 국제인권활동을 하는 국내 정부기관 및 NGO 등이 있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오늘은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감의 국제인권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하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해외건 국내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국제인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네.

공감은 활동 초기부터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태국 EarthRights International 등 해외단체와 국제민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민주노총 등 국내단체들과 함께 해외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

버마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 및 공사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현지 실태조사, 국내 혹은 국제회의 주최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진행했네. 공감은 이 외에도 필리핀 경제특구 내 한국기업(의류), 인도 내 한국기업(제철소, 광산개발)등 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국제기준인 OECD Guidelines를 활용한 진정서 제출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도 모색해왔네. 또 감시활동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일세.

공감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인권기구의 여러가지 절차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제와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기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유엔조약기구에 NGO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 특히 자유권위원회(2005년)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06년)의 경우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위원회 심의과정에 직접 결합해,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지. 2008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NGO 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교통상부 등과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네. 또한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활동가의 쓴소리, 단소리

**이동화** |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경계를 넘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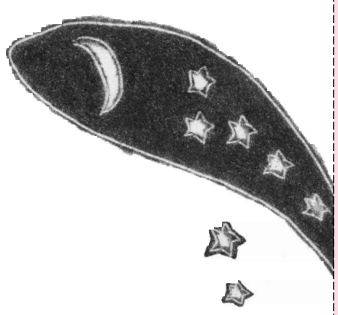
## Q___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공감변호사님들 중 황필규 변호사님을 처음 뵈었고, 구체적으로 일을 같이 한 분은 장서연변호사님입니다. 당시 저는 2007년 봄, 여름에 걸쳐 유엔 인종차별철폐 한국 NGO 반박보고서를 작성했고, 장 변호사님은 이주여성분야에 관한 집필을 담당하셨어요. 당시 계속되는 집필회의와 보고서작성 작업을 하면서 장 변호사님의 성실성에 감탄했습니다. 저런 분들이 공감을 구성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제대로(^^)된 단체일 거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 이후 황필규 변호사님과 국제인권과 관련(유엔특별절차 와 조약기구 활용)해 계속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Q___공감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공감과 연대하면서 주로 진행하는 일은, 다른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특별절차, UPR, 유엔조약기구)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유엔차원에서의 권고(Recommendation)와 결정(Decision)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창 촛불정국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공감 변호사님들과 함께 한국의 촛불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특별절차의 표현의 자유를 찾고 인권옹호자 및 고문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낼 긴급 호소문(Urgent Appeal)을 작성하고 있었죠. 하루는 공감 사무실에서 저녁부터 시작해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데, 황필규 변호사님이 근처에 맛있는 우동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으니 끝나고 가자며, 같이 참여한 사람들을 독려하셨죠. 늦은 시간이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참석자들은 우동생각이 간절해 최대한 열심히 작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너무 늦게 끝나버려서 막상 갔을 때, 포장마차는 문을 닫았고 근처에 아무 곳도 문을 열지 않아(아마도 새벽 4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을거에요) 배 쫄쫄 굶으며 각자의



유엔의 특별절차를 적극 활용해 한국 내의 인권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진정을 제출했고.
비록 공감이 국경을 넘는 국제인권 활동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국제인권 활동은 국내 혹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문제에 국한됐던 것이 사실이지. 다만 2008년부터는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호주 사우드웨일즈 로스쿨 Diplomacy Training Program에 피교육자가 아닌 교육자로서 참여하는 등 공감이 그동안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네. 또한 외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한국, 필리핀-일본으로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제3국의 변호사그룹과 단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국제 공동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네.
국제인권활동이 필요한 영역은 쉽게 해결되기 힘든 국내 문제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타국 간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지.
그래도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어떤 이의 말처럼, 역설적인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금방 지칠 수도 있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과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후배가 되길 바라네.

**글 | 황필규 변호사**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물론 황필규 변호사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문이 닫힌걸 알았을 땐, 왠지 모를 배신감이 몰려왔죠.(웃음)

### Q ___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단체들도 비슷하겠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다보니 각 변호사님들에게 일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의 활동영역이 늘어나는 만큼 요청되는 것들도 많아졌을 테니까요. 가끔 공감 변호사님들의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을 엿보게 돼요.

### Q ___지난 5년간의 공감의 변화는?

거의 매년 새로운 변호사님이 들어오시고, 사무실도 옮기고, 인턴쉽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기존보다 외형적으로 커진 것 같습니다. 물론 더불어 활동하는 영역도 다양해지고 넓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면 공감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한층 더 바빠 지셨죠.

### Q ___앞으로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지금도 훌륭히 잘 해 나가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업의 펀드지원을 망설이고 있어요. 기업의 펀드를 수용하고 있는 공감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국내의 인권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이슈(특히 점령과 전쟁)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공익 활동 중개

**| 주 · 요 · 활 · 동 |**

- **공감 인턴십 운영**
  2005년부터 9기에 이르는 정기인턴과 수시인턴, 사법연수생 변호사 실무수습 등 대학생, 사법연수생에 대한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NGO 법률수요 실태조사**
  서울대 법의지배센터에서 진행한 NGO와 법의지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GO들의 법률수요 실태를 조사하고 공익법 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연구함(2005년 8월)
-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로펌과 공익단체 간 직접적인 법률지원협약 체결 중개(2007년 12월.)
-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2회에 걸쳐서 대학생과 예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 현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법 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
  (1회 : 2008년 2월 2회 : 2009년 2.월)
-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2008년 5월)
-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대형로펌의 공익활동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2008년 5월)

## 공감 OB 인턴에게 띄우는 편지

Gong Gam 희망을 변론하다 2009

잘들 지내는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 아침,
보고픈 공감 OB 인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정기인턴을 뽑았지요. 이번이 벌써 9기이고,
벌써 공감 사무실을 거쳐 간 인턴 수만 2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05년 처음 정기인턴을 선발할 때가 생각나네요.
공감이 생긴 지 만 1년 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급 자원 활동이라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 할 지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요. 100여명의 학생들이
지원했고, 결국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정말 어렵게 12명을
선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로도 공감은 매학기 인턴을 선발했고
그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었죠. 6개월 간 문헌 조사,
통 · 번역 리서치, 소송업무 지원, 실태조사 참여, 운영 업무,
뉴스레터 취재, 블로그 운영 등 공감의 손과 발이 되어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공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는 대학생과 사법연수생들이
소외된 약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했어요.

인턴 활동을 마친 후, 자신도 전업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 공감에 기부를 시작한 사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지요.
특히 NGO 법률수요 실태조사, 인권법 캠프, 국제심포지엄 준비를 함께 했던 인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NGO 법률수요 실태조사는 전국의 400여개 공익단체에 법률수요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하고 이를 분석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요. 준비했던 인턴들이 저마다 능력을 발휘해 정리 및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흐뭇합니다.
또한 2008년 2월에는 대학생을, 2009년 2월에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권법 캠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인권의 개념과 역사' · '인권과 변호사' 등 관련 강의내용을 정리하고, '인권 상황극' · '마음 열기' 등 참여마당 진행을 도왔으며, 사진 촬영 · 물품관리 등 행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일들을 해냈지요. 마지막으로 로스쿨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때에도, 전국 25개 로스쿨의 공익인권법 프로그램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했어요.
그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 로스쿨 공익인권법 교육에 관해 발제를 하러 오신 외국 분들을 위한 통역과 발제문 번역, 행사 보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모두 인턴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멋지게 해낸 뒤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었지요.

활동가의 쓴소리, 단소리

**허용**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Q ___공감과 어떤 인연으로 공익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미약하나마 소송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연말 즈음에 공감으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충정 내 변호사님 대다수는 다른 법률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물론,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접해본 적조차 없어 과연 충정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하는 만큼의 법률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충정이 공감을 도와 진행하기에는 적당한 공익소송이 많지 않아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명분이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에 관한 정답이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원이라는 공감의 적극적 부추김도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공감의 적극적인 응원에 힘입어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 1. 14. 충정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를 비롯한 충정내 변호사님들은 아동복지법을 새로이 공부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각종 질의를 검토한 후 답변을 드리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만도 법률질의에 대한 회신 23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1회, 3회의 간담회 개최 등을 했습니다.

공감은 지난 5년 동안 거쳐 간 수많은 인턴들 덕택에
이만큼 활동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들 한명 한명과 웃으며 행복하게 일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미 법조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들도 있고,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에서
예비법조인으로서 교육을 받는 이들도 있죠. 아직 대학에서,
혹은 대학 졸업 후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도 있고요.
모두 각자 처한 곳에서 자신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겠죠. 공감과 함께한 인턴들이 많아져,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니 더 힘이 납니다.
공감 OB 인턴들, 정말 보고 싶고, 모두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글 | 염형국 변호사

## Q___공감과 함께 한 활동을 평가한다면?

업무협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후, 개최된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간담회에서 충정의 법률지원이 생색내기용 공익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파트너십 체결을 중개하는 공감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업무협약 1차 년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올해는 법률교육을 2회로 늘리는 등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는바, 앞으로도 충정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Q___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이런저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기사 속의 아동학대 행위가 최근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수없이 행해지던 학대가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 고취로 인해 새롭게 문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이 보호자나 양육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의 제고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가 단지 부모의 징계권 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하는 아주 중한 형사적 책임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감을 향한 쓴소리 · 단소리

5주년을 맞이하며 공감은 바깥으로 귀 기울여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공감 근거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내 주실 있는 분들을 좌담회 패널로 모셨습니다. 지면관계상 패널 분들의 귀중한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공감의 전망 및 활동을 기획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

**일 시** | 2009. 2. 10 **장 소** | 공감 회의실 **사 회** | 황필규(공감)

**패널 참석자** | 김종철(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래군(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양혜우(정책국장, 이주 · 여성인권연대)
이상석(사무처장, 광주 · 전남 시민단체 '시민이 여는 밝은세상') 이상희(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창수(대표, 새사회연대)

**정 리** | 소라미(공감)

## 쓴소리에 앞서 5주년을 맞은 공감에게 단소리 한마디씩^^

김종철___ 이 정도의 역사와 규모를 가진 변호사그룹이 담당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에게 지원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공감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희

이상희___ 사실 공감의 존립은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환경법률센터 같은 경우 주제가 특정되어 있고 활동기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감은 '공익' 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참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양혜우___ 저희 단체는 인천지역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변호사들의 법률해석이 법리적 틀을 넘어서지 못해 거리감만 컸습니다. 그런데 *공감의 지난 5년을 보면, 활동현장과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같은 활동가라는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변호사님들과 가깝게 역량을 주고받다보니까, 활동가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할 때, 법률적인 해석에만 치우쳐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정정훈: 우리가 1년 쉽시다! (다같이 웃음))

이창수___ 제가 공감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고마움은 몰라요. (모두 웃음) 왜냐하면 저도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안하고 떠맡기듯이 그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법률가 이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동료로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박래군___ 저는 어렵지 않게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안 그런 사람은 뽑지 마세요. (모두 웃음) 그런데 공감이 생기면서 부작용도 발생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민변 변호사들이 상당부분 일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감 변호사들이 일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나눠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래군

## 법을 도구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박래군___ 공감이 가진 장점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익적인 목표를 재판승소를 통해 관철시켜 나가고 판례를 확립시켜나가는 것이 공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로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죠. 따라서 공감변호사 각자가 맡고 있는 전문영역에 맞게 송무 실력과 노하우를 기르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희___ 소송을 해서 결국 질 사건이라고 해도 판사로 하여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서면이 나와야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변의 변호사들은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공감은 비영리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집중도를 높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번에 민변에서 악법개폐에 관한 정리를 했는데, 집시법처럼 80년대 후반부터 선배 변호사님들이 역량을 투여해왔던 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축적됐지만, 그외 새로운 분야, 특히 자본을 상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로펌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공감은 기존 변호사들이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혜우

이창수___ 저는 오히려 공감이 이미 제기된 문제만 맡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기존에 이슈화됐던 쟁점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공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감이 어떤 소송을 한다면, 이것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감을 통해 기존운동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발상의 의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에서 하는 인권법캠프도 대학생교육운동이나 조직화운동으로서 새로운 움직임인 것이죠.*

양혜우___ 저는 공감이 이슈를 선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고민되는 내용들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의제를 찾으려다가 차분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상석___ 전남에서 활동하면서 고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지역 변호사 중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공감 변호사가 직접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모두 웃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장을 다 쓰고 공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소송을 해요. 이렇게 *공감은 활동가들이 직접 법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즉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활동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박래군___ 법률 교육의 경우, 교육을 통해 법을 개인의 인권을 지켜내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운동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의 인턴쉽 제도나 인권법 캠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단체와 연대할 때에도, '인권단체에서 요청하니까 우리가 간다' 라는 식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방향설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익단체와의 연대

이창수___ '연대' 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함께하는 단체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단체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로 접근하면 '승소가능성' 만을 따지게 되는데, 단체의 입장에서는 '형성' 의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바로 그 관점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혜우___ 발제자료를 보면, *현장과의 연대활동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인권단체와 현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무언가 깊은 책임의식이 보여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변호사 단체와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법률가와 활동가의 경계에서 공감의 길찾기

이창수___ 공감은 *당연히 '변호사단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성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라는 정체성만으로는 어렵고, '활동단체' 로서의 정체성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 실적을 쫙 늘어놓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른 단체와 함께해서 이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칫 법률문제만으로 국한시키면서 그 단체의 역할을 최소화 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법률지원사업' 방식은 그만하면 좋겠고 '법률공동사업' 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철___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꼭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단순한 운동가 그룹이 아니라 변호사그룹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일반시민단체나 운동단체와 달리 공감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 혹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약자 및 빈곤층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여요. 또한 향후 전문성 축적 등을 위해서도 기존의 영역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혜우___ 공감이 하나의 운동단체가 된다면 오히려 역량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영역의 경우 단체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공감이 변호사단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넘나들며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자신을 운동가로서 표현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5년, 10년 후 공감을 상상하면~

이상석___ '아름다운재단 소속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라는 명칭, 너무 길어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가 공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모두 웃음)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공감을 '공익소송센터' 라고 소개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조직의 성격과 형식을 간단히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감이 할 수 있는 일을 좀더 압축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부분에 분양해야 합니다.

박래군___ 공감을 보면 앞으로 공익변호사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충분히 충원하기에는 조직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호사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다른 곳에 가서 공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룹을 만들것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제2, 제3의 공감을 만들 것이냐, 기존의 인권단체에 속할 것이냐의 선택지가 있다면, 전문변호사도 인권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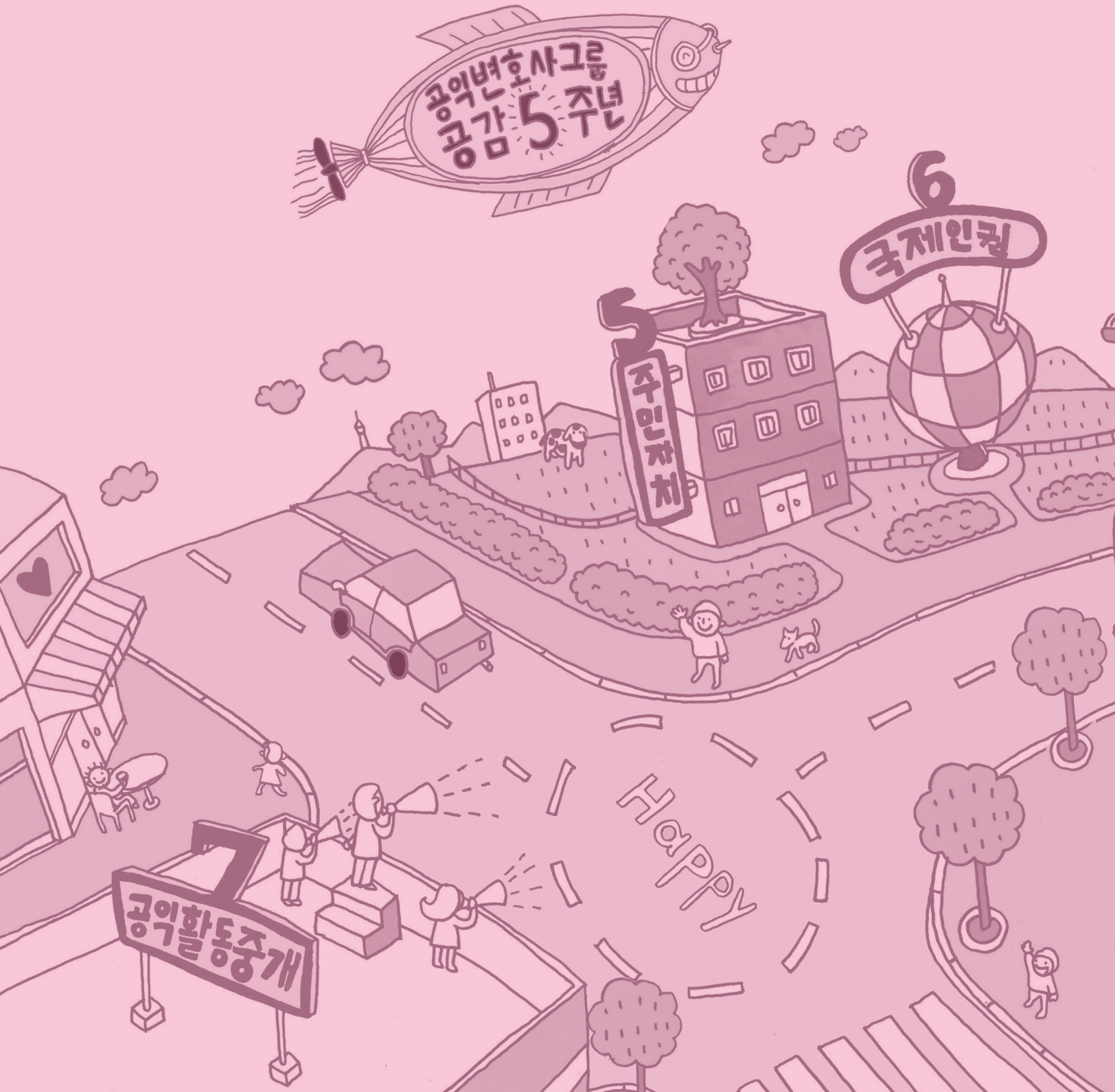
김종철

양혜우___ **제가 바라는 모습은** 공감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법률지원 및 소송대리도 하고 지자체감시 및 구체적인 조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작게 핵심을 두고, 지역에 분산시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운동을 하는 데에 좀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철___ 너무 조급하지 않게 확실히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에 매달려 이슈별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교육,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은 공감이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교육기관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___ *법률문제를 다루는 인권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단체는 변호사가 가진 무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을 운동화 시키려다 보면 변호사로서의 존재가치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운동 단체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만 개 될 거에요. 변호사 그룹으로서 남기가 불편합니까? 자꾸 과도하게 운동단체 쪽으로 기울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모두 웃음)

이상희___ *제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 유일한 공익법률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나 환경소송센터와는 다른 그야말로 공익소송을 하는 유일한 공간인 것이지요. 이곳이 이후에 생길 많은 공익법률사무소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공익법률사무실이 만들어질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아니 그 이상 살아남으셔야 해요! (모두 웃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 주년
5
주민자치
6
국제인권
7
공익활동중개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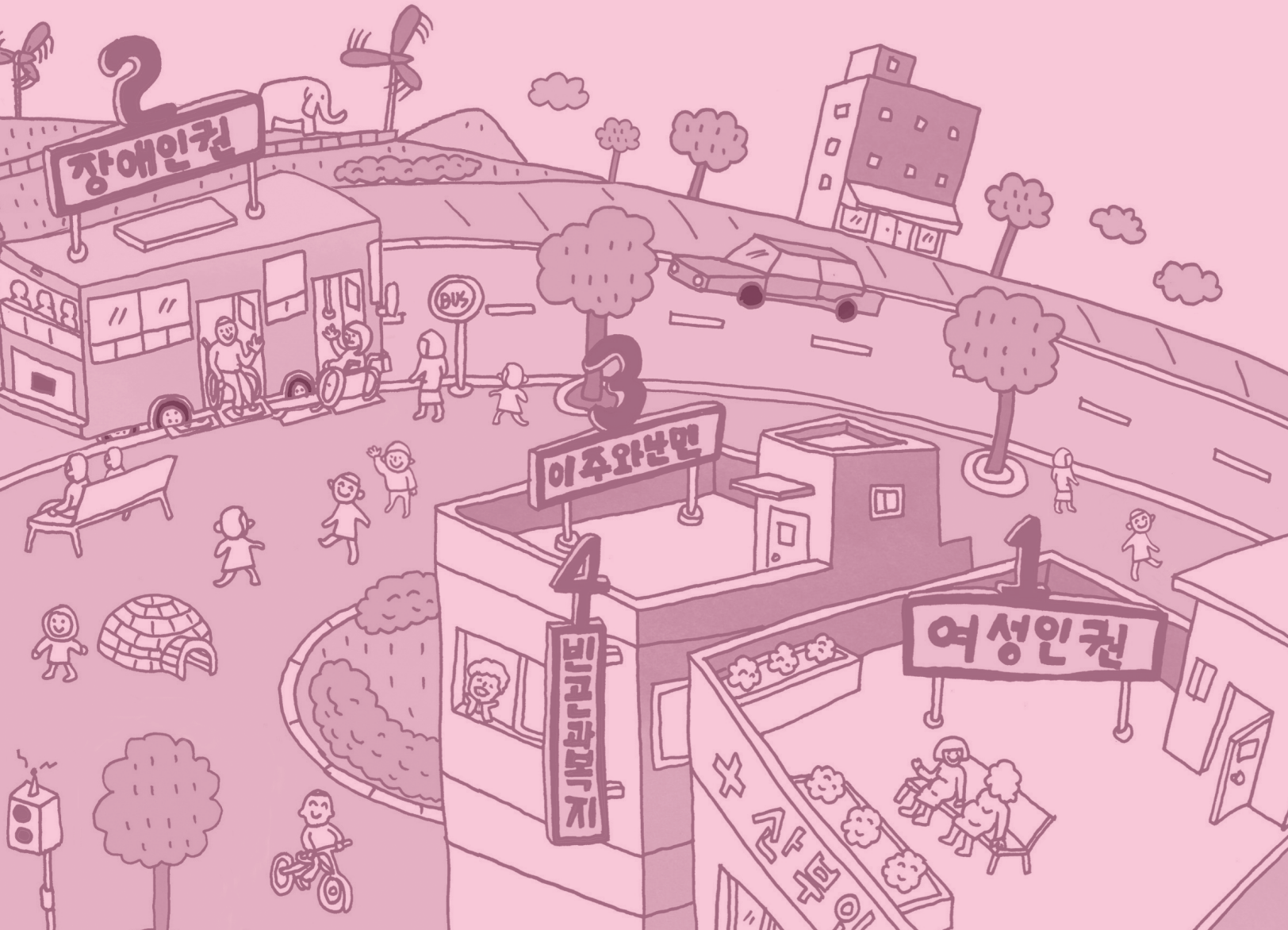
기획 인터뷰

# 공익법활동을 듣는다

국경을 넘어 현장으로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 인권 클리닉 Tyler Giannini 소장)

일본의 난민변호사를 만나다
(와타나베 쇼고(Watanabe Shogo)변호사)

고전의 울림, 김선수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국경을 넘어 현장으로

>>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 인권 클리닉 Tyler Giannini 소장

공감이 처음 Tyler Giannini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소장을 대면한 것은 2005년 4월이다. 공감이 2004년 12월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단체들과 해외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마침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년간 해왔고 버마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버마에서 미국기업 Unocal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면서 9년 소송 끝에 조정에 성공,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태국으로 가서 EarthRights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수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그는 2005년 당시 공감을 보면서 자신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2008년 3월 공감은 이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과 공동으로 버마 내 한국 기업 및 공사의 자원개발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개별 사례 해결 및 정책 권고를 위한 진정을 제출했다.

버마 내 한국 기업 및 공사의 자원개발활동에 대해 관련 기업 경영진,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면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그를 2009년 1월 16일, 공감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공감 5주년을 맞아 그의 경험과 공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부탁에 흔쾌히 응해주었다. 이 자리에는 황필규 변호사, Anne Kim 펠로우, 신혜성, 이호림 인턴이 함께 했다.

## 로스쿨 생활과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

**황필규**(이하 '필규')_ 로스쿨에서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나? 로스쿨 졸업 후 어떻게 전업 공익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나?

**Tyler Giannini**(이하 '타일러')_ 학부 때부터 인권과 환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들어 올 때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국제인권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로스쿨 초기부터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로스쿨 1학년 때 아이티 난민지원 클리닉 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현장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환경과 관련된 현장에서 국제인권활동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필규**_ 미국 내 인권문제가 아닌 타국의 인권 문제, 특히 버마 인권문제, 다국적 기업이나 환경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타일러**_ 원래부터 거창한 비전이 있었다기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 같다. 로스쿨 2학년이었던 1994년 여름, 펠로우쉽을 받아 2명의 동기와 함께 태국에서 자원활동을 했는데, 이 때 타국 활동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설립하게 된 EarthRights International(이하 'ERI')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때 생겼다. 하루는 정글 한가운데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버마민주화단체 사람들과 촛불을 밝히고 둘러앉아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폭력, 무장투쟁에 관한 것이었다. 같이 갔던 로스쿨 동기인 Katie Redford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버마와 관련해, 특히 자원개발 분야에서 비폭력적이면서 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젊은이들이 총을 들지 않아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의기투합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다.

## 로스쿨 졸업, ERI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필규**_ ERI는 어떤 계획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나?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

**타일러**_ 로스쿨을 졸업하고 Katie와 나는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로스쿨 마지막 해에는 Earthjustice라는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했다. 당시 환경 관련 인권선언과 원칙들이 막 나오는 참이었고, 나중에 감시의 대상이 된 미국회사 Unocal도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는 셈이었다. 우리는 졸업 후, 새롭게 사회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Echoing Green 펠로우쉽을 지원했고, 이 펠로우쉽을 받기 전, 로스쿨 마지막 학기에 ERI를 만들었다.

우리는 Unocal의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법적 전략(소송, 협상 등)', '캠페인 및 활동가 교육훈련',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등의 활동내용을 가지고 접근했다. Unocal 사례에 적용한 접근방식은 이후 다른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쓰였다.

**필규**_ ERI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로 어떤 도전에 맞닥뜨렸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타일러**_ 도전은 없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필규**_ 공감처럼 말인가? (웃음)

**타일러_** 바로 그렇다. (웃음) 물론 당연히 무수한 도전이 있었다.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 중 하나가 재정 문제일텐데, ERI의 역사를 봤을 때 소위 '조직'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큰 도전이었던 것 같다. 나와 Katie, 그리고 미얀마인인 Ka Hsaw Wa가 ERI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초기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며칠 밤을 새워 피곤해져도, 돈이 부족해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오로지 특정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 물론 우리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Unocal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ERI를 설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과정은 지난 10년 넘게 계속돼 왔다. 모금, 구성원 충원, 후원자에 대한 보고시스템 확립,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 설치 등 많았지만, 그 밖에 내용적인 도전도 있었다. 바로 소송의 승패다. 소송에 패하고 나서는 매번 후회와 안타까움이 엄습하기 마련이었다.

**필규_** 일반 소송도 몇 년을 끌면 동력을 잃기 쉬운데, 한 가지 이슈에 9년간 집중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나? 혹시 무슨 비법이라도?

**타일러_** 비법은 없다. (웃음) 우리는 'ERI 스쿨'이라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봤다. 처음에는 버마의 다양한 민족출신 학생 12명에게 1년 동안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마치 클리닉처럼. 이들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취합하고 자료 정리를 도왔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강제노동자와 고문 피해자, 장래의 활동가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매번 이 모든 과정을 정리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접근방식일 뿐이지, 우리가 지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웃음)

**필규_** 장기간 활동하면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

**타일러_** 재정문제도 결국 큰 도전 중 하나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운이 좋았다. 세 명의 공동설립자는 각자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Katie는 타고난 모금전문가이고, Ka Hsaw Wa는 선천적인 대중조직가이자 연설가이다. 우리는 모두 자료정리에 능했는데, 그 중 Katie와 나는 글을 잘 썼다. 특히 나는 법률업무를 잘 해내는 편이었다. 결국 이러한 능력의 조합은 큰 힘이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재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필규_** 9년간의 태국 활동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타일러_** 어려운 질문이다. 태국을 떠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버마인들과 바로 옆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9년간 함께 활동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됐다. 특정 사례를 다룰 때, 그 문화에 기반한 고려가 없다면 법적인 접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인권을 바탕으로 한 관계형성이 없다면 별다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굳이 내가 잃은 것을 이야기하자면, 전보다는 덜 순진해졌다는 것이다.

**필규_** 좋은 인성을 잃은 셈이군. (웃음)

**타일러_** 아마도 ……. 그렇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잃었다기보다 오히려 얻었다고 생각한다. 경험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잃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덜 순진해진 것 역시 내가 잃게 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 뿐이다. 그게 순수함을 잃은 것일까?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Harv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그리고 그 후

**필규_** Harv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에 결합하게 된 계기는?

**타일러_** ERI는 공식적으로 안식년이 있는데 이때 Harv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에 결합하게 됐다. 원래 계획은 안식년 후 ERI 미국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나는 Harvard에서의 생활에 만족했고, 마침 ERI 미국사무소에는 Marco Simons라는 훌륭한 법률전문가가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Harvard에 머물게 됐다.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떠날 때라는 생각도 든다. 다시 돌아가 법률전문가로 일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것이 조직의 건강성을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한다.

**필규_** Harv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ERI와 Harvard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타일러_** Clinic의 목적은 ERI와 다르다. 기본 목적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협력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Clinic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다. 또한 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측면에 집중한다. 즉 우리는 단지 소송진행, 보고서 작성, 입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협력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좋다, 이번에는 소송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것을 할 것이다, 다음에는 저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함께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ERI가 취하고 있는 통합적인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결국 전술의 문제이다. 때로는 법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법적 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권운동의 한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우리 활동 중 예를 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Alien Tort Claims Act' 라는 소송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이 법안은 1989년 입법했는데, 외국에서 군대가 개입되지 않은 국제법상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미국인이 아닌 자가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5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필규_** 이제 Harvard에서 일한지도 5년째다. 그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또 이러한 삶 혹은 활동에서 원칙이 있다면?

**타일러_** 가장 어려운 점은, 인권분야는 하는 일에 비해 항상 승리가 뒤늦게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결국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승리라도 잘 지켜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원칙이나 철학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혼할 때 아내에게 "인권은 나에게 있어서 일 이상의 무엇,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그 무엇이다"라고 말했다. 그 게 나의 마음인 것 같다. 굳이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 미국과 한국의 공익 인권법운동에 대해

**필규_** 미국 공익변호사 운동에서 로스쿨 변호사들의 상황과 직면하는 한계, 고민지점 등을 설명한다면?

**타일러_** 우선 꼽는다면, 미국 로스쿨의 공익법운동에 대한 전통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 경험에 비추어 미국 내 전통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익변호사가 되게 하는 유인책인 것 같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지 않은가. 물론 공익법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학생이 공익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 오히려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NGO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 대부분이 로스쿨을 다니면서 많은 대출금 때문에, 졸업할 때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하나의 중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많은 로스쿨이 틀에 짜여진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결국 로스쿨을 졸업해도 한정된 능력만을 습득하게 된다. 결국 공익변호사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다른 기술을 별도로 습득해야 한다.

공익변론 그 자체만 봤을 때는, 대법원 혹은 기존판례경향이 꾸준히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인 것 같다. 지난 8년간 보수적인 대법관이 계속 들어섰다. 물론 그 전에도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은 계속 문제였다.

**필규_** 한국 변호사들의 인권활동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한국은 현재 처음으로 민주주의 혹은 인권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험 있는 인권변호사로서 조언이 있다면?

**타일러_** 나는 한국에 대해 제한된 경험만 가지고 있고, 공감과의 협력관계가 거의 유일하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해 언급하자면, 우리가 그렇듯 한국도 인권이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결국 법이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미국에서 경험했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이 제자리를 찾고 법원의 결정 또한 이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인권변호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변화도 있었고 좀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 공감에 대해

**필규_** 공감은 미국 공익변호사그룹을 참고로 했지만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조직구조에 있어 대표나 위계질서 없이 7명 변호사, 2명 간사가 동등한 구성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구조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타일러_** 우리는 ERI를 설립하기 전에 여러 다양한 모델들을 보고 연구했다. 그 모델 중에는 공감과 같은 모델도 있었다. 나는 이 모델이 일정한 규모 내에서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명의 구성원을 가진 ERI를 예로 들면, 25명은 공감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 공감대을 형성하기에는 이미 규모가 너무 크다. 하지만 구성원끼리 공감하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나름대로 1년에 2번 전체 모임을 갖고 그러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무튼 나는 공감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모델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구나 주류적 흐름이 사실상 기업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에는 모든 것이 나이, 성 등에 의해 위계질서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공감의 구조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매우 독특한 모델임에는 틀림없다.

**필규_** 재정의 경우, 공감은 주로 개인과 로펌 기부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대규모 모금행사 중심의 형태가 아닌 개인들이 있는 곳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기부자를 모으고 있다.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슷한 모델이 있는지, 이러한 모델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타일러_** 공감이 그런 형태인지 미처 몰랐다. 일반론적으로 나라마다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형태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존에는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에 있다." 정도의 인식이 일반적일 텐데, 공감의 정확한 형태를 알게 되면 많은 이들이 공감의 경험을 배우고자 할 것이다. 대안 모델로서 좀 더 지금의 형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시아 내 대부분의 단체들은 기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고 결국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감의 모델은 그런 점에서 훨씬 바람직하다. 개인기부자는 지속가능하고, 또 국외 보다는 국내 기금이 훨씬 안정적이다. 태국만 봐도 그렇다. 여러 단체들이 외부 기금의 지원을 받았는데 재정적으로 안정되니까 기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버린 일이 있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외부 기금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돼 있다. 기금에 대한 의존도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런 점에서 공감의 모델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필규_** 이미 공감과 Harv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은 슈에가스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공감과 Harvard Clinic이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타일러_** 슈에가스 프로젝트에 관한 활동을 시작한 초기,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단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공감과 만나게 됐다. 공감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면에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슈에가스 프로젝트는 앞으로 꾸준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두개의 클리닉 혹은 프로그램을 공동프로젝트로 진행했다. 일례로 'Berkman Center' 가 인터넷 관련 작업을 하고 우리가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서 인터넷상 검열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처럼 앞으로 공감과 Harvard Clinic이 많은 일을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리 | 황필규**

# 일본의 난민변호사를 만나다

>> 와타나베 쇼고(渡邊彰悟)변호사

와타나베 쇼고(渡邊彰悟)변호사는 일본에 체류 중인 미얀마 난민들의 인권보호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현재 일본에서 버마시민포럼(PFB)과 버마난민신청변호단, 전국난민변호단연락회의(전난연)의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공감이 와타나베 변호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정부가 한 미얀마인의 난민신청을 거부하면서 부터다.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간 이 미얀마인을 와타나베 변호사가 도와 일본 법원에서 승소한 것이었다. 당시 공감에서는 다른 일행들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공감은 5주년을 맞아 2009년 2월 9일경 와타나베 쇼고 변호사를 공감사무실에서 만났다.

## 와타나베 쇼고 변호사의 개인 활동에 대하여

**Q** 언제부터 공익활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기업, 국가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첫 변호활동이 HIV감염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혈우병 환자들 중 1500~2000명이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아 HIV에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난민 문제 같은 외국인의 권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외국인의 권리, 특히 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1년 아시아태평양법률학회를 준비 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미얀마 변호사를 초청하려 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92년에는 미얀마 국경지역에 인권실태조사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현지의 좋지 못한 인권상황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 와보니 일본에도 미얀마에서 봤던 것과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난민심사 신청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92년 12월, 난민신청 지원을 해보니 당시에는 '60일룰'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 2006년에 폐지됨)이 있어서,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분들을 그냥 미얀마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현재 전국난민변호단연락회의(이하 전난연)과 버마시민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요, 전난연과 버마시민포럼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두 단체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전난연은 97년 난민지원을 위해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입관국(한국의 출입국관리국)과 싸워 이기려면 변호사들의 협업이 필요했거든요.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지 않았다면 '60일룰' 을 깨뜨리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난민 소송을 지원하고 있어요.

버마시민포럼은 96년도에 설립된 NGO 시민단체에요. 이곳에도 15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지요. 하지만, 변호사만 있는것이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화를 원하는 일반시민들이 주 구성원입니다. 당시 미얀마 상황은 매우 안 좋았어요. 이 상태로는 사회가 전혀 바뀌지 않겠다 싶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버마시민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좀 더 덧붙일게요. 80년대 후반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민주화의 흐름이 있었지요. 당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큰 변화가 있던 때였어요. 그때 미얀마도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88년도 제가 사법연수원생일 때, 미얀마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민주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요.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미얀마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얀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는, 96년에 아웅산 수지 여사를 댁에서 만난 기억 때문입니다. 비록 한 시간 정도였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얀마에 대해 애정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 둘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겠다고 그 분께 약속을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요(웃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난민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난민지위를 얻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지요. 체류자격을 얻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Q** 난민문제는 장 · 단기적인 과제인데, 난민소송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요?

난민인정 기준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막상 객관화, 투명화하려니 그 방법이 잘 안보이네요.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에도 문제가 많지요. 재판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민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합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난민 신청자의 취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서, 정작 일을 못하게 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정부도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들은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변호사들이 개선을 해 나가야겠지요.

**Q** 공감에서 진행했던 미얀마 NLD사건에서 사실은 판결문만 받으려고 했는데, 미얀마 분들께서 복사를 해오신 자료가 2박스였어요. 온갖 자료가 다 있더군요. 자료와 경험들을 어떻게 축적하고 계신지요?

92년부터 버마난민신청변호단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니, 현재 16년이 넘었지요. 별도 사무국이 있고, 영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수집도 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도 가능해요. 특별히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이전부터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더 빨라졌지요. 미얀마어를 할 줄 아는 스탭이 한분 계시고, 영어를 하는 분도 한분 계셔서 필요한 경우 각자의 영역에 맞는 자료를 잘 찾지요.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 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변호사 경험이 20년이 넘었고, 여러 단체들과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 활동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은?

제 좌우명 중에 '3아' (あ) 원칙이 있어요. '아세라나이' (あせらない, 조급해하지 않는다), '아와테나이' (あわてない, 당황해하지 않는다), '아키라메나이' (あきらめない, 포기하지 않는다)인데요, 비록 제가 조급하고, 쉽게 당황하는 편이지만 포기를 모르는 것 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활동 중, 법률개정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영향력도 발휘했고, 덕분에 전문가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난연' 도 더욱 커질 필요가 있지요. 처음과 달리 이제는 '입관국' 도 '전난연' 을 인정하거든요. 연 몇 회 정도는 '입관국' 과 협의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일본의 난민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미얀마에 민주화가 오면 지금의 제 일이 줄어들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닌다면 공짜로 3년 간 미얀마를 여행할 수 있을 거에요(웃음).

## 일본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하여

**Q** 일본에도 상근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도 있고, 와타나베 변호사님처럼 별도의 수임 활동과 함께 공익 활동을 하는 공익 변호사도 많이 있을텐데요. 일본의 경우, 언제부터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었나요?

음,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게다가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네요. 따져보자면 전후(戰後)세대부터인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후 이따이이따이병이나 미나마타병처럼 심각한 공해병이 발생해,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인단이 꾸려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한국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있어요. 국가와 대립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이 약해졌어요. 변호사 수는 굉장히 증가한 반면, 인권이나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변호사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Q** 공감은 앞으로 로스쿨에서 공익활동 프로그램, 로펌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며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익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와세다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외국인과 법' 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목이 있는 대학은 일본에서도 흔치 않아요. 와세다에서도 작년에 20명 정도만 그 수업을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로스쿨이라면 공익 관련과목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Q** 일본의 변호사들이 시간을 내서 법률자원봉사를 하는 문화가 있는지요. 또 그런 분야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금씩 프로보노(pro bono)를 하려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난민 사건의 경우, 난민지원협회(JAR)를 중심으로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프로보노의 중심은 난민지원협회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NGO 협력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 5주년을 맞는 공감에 대한 조언

**Q**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공감은 내부적으로도 위계질서, 상하, 대표 없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구조를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본에는 이러한 구조는 거의 없죠. 흥미로운 형태라고 생각해요. 원래 변호사는 혼자 일을 하지만 공감처럼 상호 존중하면서 일을 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겠지요.

**Q** 공감은 주로 개인과 로펌의 기부에 의존합니다. 일본에는 이러한 형태가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와타나베 선생님께서 직접 창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본보다 한국에서 개인기부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노조나 기독교 단체의 영향인가요? 일본 사회라면, 변호사가 기부를 받아서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일본 변호사들은 개인 혼자 운영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본 공설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변호사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공감이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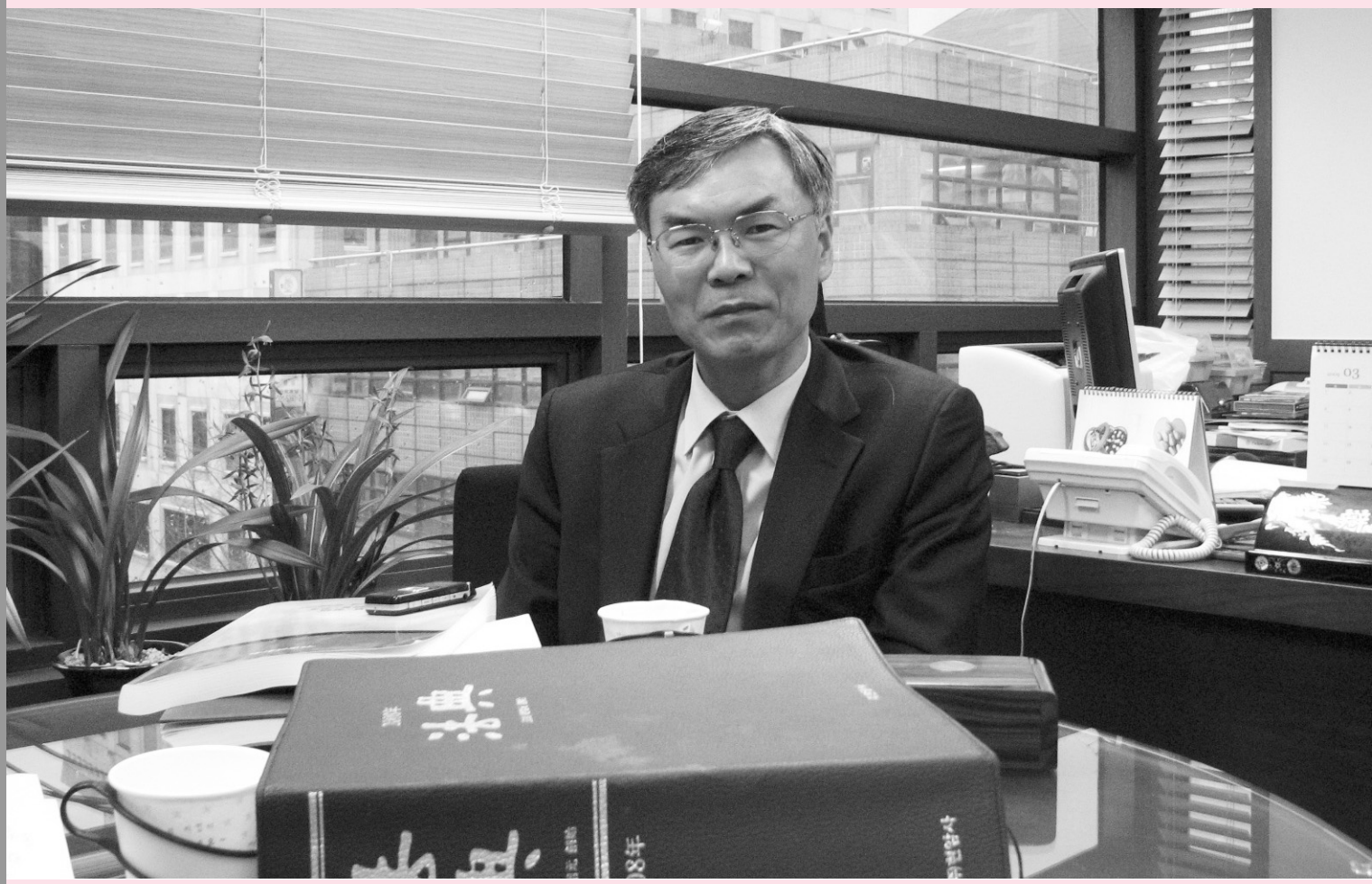
**Q** 공감이 이제 5년이 됐는데요. 우리 고민 중 하나가 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서울, 부산 등으로 분산 혹은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국제인권' 만 하는 곳을 별도로 독립시킬까 하는 문제에요. 재정적인 부분과 공동체 내부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하는 물음도 있고요.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부금 등 재정적 문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확대 역시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결정 이전에 시민들에게 공감을 인식시키고, 존재의미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후 재정 문제가 해결 되면, 확대하고요. 이런 많은 일을 7명의 변호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에서도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일거고요. 오히려 일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 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공감이 다루는 주제도 매우 중요하고요. 일본에서는 우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일인지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감' 도 마찬가지겠지요. 예를 들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 분들의 인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널리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정리 | 장서연

# 고전의 울림, 김선수 변호사



>> 김선수 변호사

"얇은 것이 쌓여 두꺼워지고, 적은 것이 모여 많아진다."(積薄爲厚, 聚少爲多). 김선수 변호사의 블로그 첫 화면 글귀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거라고 가볍게 설명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인 것만 같다. 고전을 인용해 압축적으로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그 향기가 오래간다. 5년 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5년 전, 앉으면 서로의 등이 맞닿는 좁은 사무실에서 4명의 변호사가 '공감'의 시작을 고민했다. 선배 변호사 몇 분을 찾아뵙고, 격려와 조언을 듣는 것으로 처음의 막막함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렇게 우리는 김선수 변호사를 찾아뵈었고, 당시 조용한 목소리로 힘있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다. 그 말씀들 중에 지금까지도 선명한 것은, 변호사님의 사무실 이름 '與民'을 직접 종이에 써서 뜻을 풀이해 주신 것이다. 그는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란 뜻이며, 그 여민(與民)이 麗民, 慮民 등 다양한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후 내게 '여민'이라는 단어는 이전과는 다른 울림을 지닌 깊은 말이 됐다.

## 블로그, 파하

**Q** 노동사건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가끔 변호사님의 블로그에 연결되기도 한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되었는지?

5년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다. 블로그는 두 가지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중적인 글쓰기 연습이다. 법률가들의 글이 워낙 장문의 만연체이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읽히지 않아서 가독성 높은 단문형 글쓰기를 연습해보고 싶었다. 인터넷 글쓰기는 짧은 문장의 호흡을 익히는 데 유용한 것 같다. 또 하나는 삶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살아보려하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주로 산행 모임 일정과 독서 메모를 올리고 있다.

**Q**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별칭이 '파하'로 되어 있다. 파하의 의미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깨트릴 '파'(破)에 짐 '하'(荷), '짐을 깨트린다'는 의미이다. 민중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깨라는 의미, 역사의 질곡을 깨라는 의미로 말씀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 고전, 병서

**Q** 블로그 곳곳에서, 변호사님의 고전에 대한 깊이와 애정이 느껴진다. 고전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윤리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그때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 시절 담임선생님 덕분에 논어나 노자에 나오는 경구들을 자주 들춰보면서 견뎌냈다. 그 인연이 대학에서의 고전연구동아리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Q** 최근에 읽고 계신 고전을 소개해 주신다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육도삼략〉 같은 병서를 자주 꺼내 읽게 된다. 전쟁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이 책을 보며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 오늘의 현실을 읽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병서를 통해 '전투에서만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 노동변호사

**Q** 20년 이상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노동사건 변론을 하게된 계기가 있는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부터 노동변호사를 생각했다.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편이 아니었다. 고전연구회 동아리를 하면서 문제의식이 쌓였고, 운동에 대한 부채감도 있었다. 주위에 현장으로도 가는 친구들도 많았다. 군대 제대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사람들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로부터 노동자를 위해 법률가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변호사로서 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노동문제에 기여하는 변호사로서 길을 걷기로 정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Q**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시작할 때는 노동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을 때가 아니었는지?

노동 사건이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구로동맹 파업이 있었는데, 박석운 선배가 상담소를 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 사건에 대한 재판 지원을 했다. 전문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노동사건을 맡았다기보다는, 인권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Q** 최근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노동변호사 업무에도 많은 지형의 변화가 있을 법한데 어떤지?

민주노총 법률원 같은 모델의 정착은 노동사건 변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무척 반가운 일이다. 또한 대형 로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나는 대형 로펌과 노동자 조직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영역이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적 가치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Q** 노동변호사가 보는 노동법의 한계 혹은 가능성은?

현 노동법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노동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제한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법에 그렇게 많은 제한규정, 처벌규정을 둔 예는 세계적으로 없다. 현재의 단체법은 근본적,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반면 법률해석은 탄력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 문제되는 많은 이슈들은 신축적인 법해석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사실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처벌 등 모두 다 해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장기파업 사업장들, 예를 들어 이랜드, 예스콤, 코스콤, 현대미포조선의 용인기업, 알리안츠생명 모두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그만큼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법률적인 한계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제대로 해석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많다.

**Q**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는?

'전두환 정권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계를 최소한 파트너로는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전혀 없다.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집회나 시위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런 관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아예 적대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돼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기본 토대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사법개혁

**Q**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단장을 했다. 이를두고, 한승헌 변호사는 "선수에서 선수단장이 됐다"고 농담을 했다는데, 사개추위 활동에 대한 소회는?

우연한 계기로 그 쪽에 관여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위원을 선임 할 때 노동계 대표로 내가 선출됐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어서 대표로 뽑힌 것인데, 사실 일선에서 활동하는 노동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이나 청와대가 인선을 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부터 의견을 구했다고 들었다. 어쨌든 사개위가 사개추위로 바뀌면서 사개추위의 실무직 제안이 들어왔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할이었고,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다.

사개추위 활동 2년 중, 1년차에는 중요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2년차 때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법안들은 내가 그만둔 다음인 2007년 4월, 6월에 통과됐다. 사실 로스쿨법의 경우, 학계로 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제안된 개혁방안으로는 가장 현실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사개추위 기획추진단과 관련 행정부처, 경찰이 함께 상근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런 작업은 아마 최초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위기 상황도 있었다.

당시 나는 '사법개혁이 현재보다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했다. 최종적으로는 입법이 돼 국민참여재판도 시행됐고, 로스쿨도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도 전면 개정에 가깝게 바뀌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Q** 대직약굴(大直若屈)이라는 성어로 풀이하신 것이 있던데.

'큰 곧음은 굽은 듯 하다'는 의미이다. 당시 검찰의 강한 반대로 형사소송법이 최초 안보다 대폭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큰 직선은 세세하게 보면 굽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직선의 상태는 유지하는 것이다. 약간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Q** 대법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지적된 것처럼, 구성이 매우 동질적이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해서,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됐으면 한다.

**Q** 대법관 수의 증원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대법관 수를 기준으로 운영되려면 상고가 남발되지 않게 하급심 판결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시말해 1심

판결이 충실해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1심 판결에 승복해서 끝나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하다. 1심과 하급심의 재판 결과에 승복을 못하니까 그만큼 하급심 재판의 권위가 떨어지고 대법원으로 사건이 몰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심이나 하급심 재판의 권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법관들로 1심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1심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1심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우선 법조 일원화가 필요하다. 정 안 되면 어느 정도 소폭 증원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독일식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정답이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Q** 앞으로 사법개혁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검찰권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벌집행권까지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 집중된 권한을 분화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와 공소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소 독점의 경우만 해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게 되어있다. 처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재정신청사건이 너무 많아 부담이 크고, 매 사건마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통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관련 자료가 축적된 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범죄에 대해서 사소제도(私訴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도 검찰권의 독점을 여러 갈래로 나눠 상호견제 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그 밖에 지방 검사장 직선제도 있다. 어쨌든 검찰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런 방안들이 절박하다.

## 민변

**Q** 민변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민변 활동을 변호사 생활과 같이 하신건가요?

민변의 창립 멤버였다. 변호사를 시작하던 해 초, 민변 창립총회가 있었다. 나와 같은 기수들이 막내로 참여했다. 민변에서도 주로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Q** 민변 20주년, 새로운 다짐은 무엇인가요?

민주 정부가 수립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제는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정권 하에서도 방향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사회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춰서 사회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민주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 공감

**Q** 공감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훌륭한 후배들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새로운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멀리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리 | 정정훈

#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원순 씨가 예비법조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 감수성을 갖고 보면 모든 것이 인권이다

반갑습니다. 인권법캠프 프로그램을 보니 '미류', '욜', '영원'도 있는데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썼죠?(모두 웃음) 내 이름은 박원순이니 '원순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도요새 씨', '도요새'라고 부르면 됩니다. 멸종동물이나 멸종 위기의 동물 이름을 부르자 해서, 저는 '넓적부리도요새'를 택했어요.

우리나라는 호칭이 참 웃깁니다. 대법관을 마친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대법관님'입니다. 호칭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법관님'으로 부르니 이제 대법관이 아닌 사람과도 계속 '대법관'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인권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이 출신국 말 밖에 모르는데 도처에서 영어만 쓴다면, 그 삶의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언어에 대한 권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감수성을 갖고 보면, 모든 것이 인권입니다.

## 법조인, 절망과 슬픔에 대한 실존적 고민 없으면 흉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시골 동네에서 '축. 우리 동네 어느 집 아이 사시 합격'이라는 펼침막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축' 이라는 걸 떼어내고, '근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법조인이 좋은 직업인 줄 아세요? 나는 변호사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역사를 모두 꿰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내가 변호사를 계속 했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소진되어 버려요. 의뢰인의 억울함이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죠.

지금도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억울하다며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내가 만나본 많은 사법피해자들은 손이 벌벌 떨리는 수전증이 있거나,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변호사, 판사나 검사라는 자리는 절대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절망과 슬픔에 대한 이해 없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판·검사 자리에 갔죠. 그 때문에 사람들의 억울함이 양산된 것은 혹 아닐까요? 물론 어떨 때는 그 분들의 억울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게 해 줘야죠. 그러나 과연 우리 법관은, 우리의 검찰은, 우리의 법조인들은, 국민들이 덜 억울하도록 충분히 친절했던가, 충분히 이해했던가? 이 점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 없이 법률가가 되면 법률가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 여러분의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 왜 사람들은 서초동으로만 갈까요? 미국의 NLG(National Lawyers' Guild)라는 단체와 미국 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두 단체에 비슷한 시기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ABA 총회는 뉴욕의 좋은 호텔에서 한 반면, NLG는 뉴욕의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모여 행사를 하는데, 자신들을 법률노동자(Legal Worker)라고 불러요. NLG가 당시 내 인터뷰 제목을 'People's Advocate'로 하였을 때 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한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를 위해서도 변호사가 있기는 해야겠지만 부자는 어차피 해 줄 사람이 많거든요.(웃음) 그러나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변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들의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늘 한 사회가 정상성을 회복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출세를 위해 줄을 서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끊임 없이 줄을 섭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대열에 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에 자신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죠. 보통은 그런 기회를 잘 갖지 못하는데, 다행히 여러분에게는 이 캠프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할 께요.

## 인생의 큰 원칙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Q** 원순 씨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법조인이 다 가는 그 행렬'에 서지 않으셨던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요?

– 캠프 참가자 채혜미

글쎄, 그냥, 나는 그런 거 없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웃음) 사람이 인연 따라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삶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큰 원칙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성실한 농부셨거든요. 착함이랄까요? 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 원칙들을 따르다 보니 느닷없이 감옥도 가게 됐어요. 학생들 다 데모해도, 나는 그냥 앉아서 눈 딱 감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학생들 흐름에 끼어서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또 감옥 갔을 때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변론을 하다보니 인권변호사가 됐고, 또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 늘 후방에만 서 있을 수는 없어 함께 앞장서기도 하고, 민변도 열심히 했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도 변화가 중요하겠다 싶어 '참여연대'를 하고, '아름다운재단'을 하게 됐고, 지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아젠다들이 창조적으로 사회에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희망제작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희망제작소' 말고 다른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모르죠, 내가 후에 무엇을 할지. 그 길들은 언제나 열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현실에 발을 잘 딛고 있으면. 자신이 있는 그 사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또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뭔가 열심히 하다보면 저절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당시 사망한 함병춘 씨는 훌륭한 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나요? 왜 전두환씨 옆에 갔나요? 아시겠지요?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공감 변호사들도 그런 사람들이예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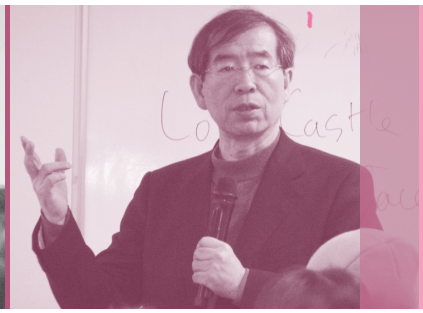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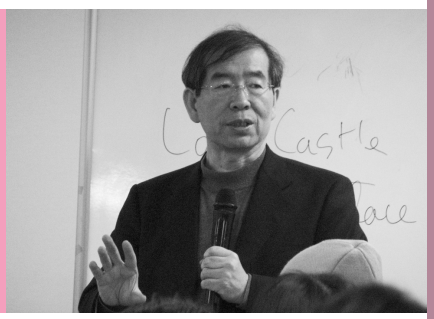
## 인생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Q** 좋은 사람들 옆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순 씨에게 특별히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나 좋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 캠프 참가자 김차연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죠. 제가 대학 1학년, 열아홉 살에 영등포구치소를 갔더니, 소년범들 중에 '강'자 붙은 강력범은 다 와 있었어요. 강도살인으로 온 친구도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 그 친구에게 목 졸려 죽을까봐 잠을 못 잤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이 친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또 무엇보다 감옥은 완벽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모두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모두 웃음) 저는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말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듯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참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영래 변호사도 그런 분들 중 한 명입니다. 이 분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감옥에 갔다오면서 사법연수원에서 제명된 몇 년 후에 저하고 같이 연수원에 다녔는데, 그 때 친하게 지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 명석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포용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권인숙 씨에게 보내는 위로편지 아이디어가 조영래 변호사에게서 나온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권인숙이라는 성고문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결국

이것이 진실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법적 안정성 앞에서 구체적인 정의는…

**Q** 사회 현안이 있을 때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현행법 위반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을 내세울 때 구체적인 정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캠프 참가자 김정기

현실에서는 정의나 진실에 다가설 때 장애물이 있고, 그 현실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성질서를 옹호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단계 진전하려면 소수의 이슈(minority issue)를 발굴해서 다수의 이슈(majority issue)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조중동은 운동이 일부의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운동은 당연히 마이너리티의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수라면 왜 운동을 하겠습니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자주 충돌합니다. 전자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 후자는 활동가, 저항가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제도를 수호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옹호자(Advocate)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윌버포스(W. Wilberforce)라는 촉망받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노예무역 폐지를 주창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당대에 노예무역 폐지에 성공하였습니다. 노예무역 폐지 주장은 당시 영국의 현실에 반하는 것이었고, 수상까지 할 수 있었던 윌버포스를 좌천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당시의 영국 수상이 아니라 윌버포스 아닙니까?

현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컨대 여성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로운 주제를 찾아 도전하십시오. 비어 있는 곳은 많습니다.

## 인권의 항목은 늘 변화한다

**Q** 인권운동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권 영역에서도 변화가 많아서 요즘은 새로운 인권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도요새 씨께서 주목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캠프 참가자 정다은

다은 씨가 찾아보세요.(일동 웃음) 그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로 찾아야 합니다. 다은 씨 말이 맞아요. 인권의 디렉토리(directory), 인권의 항목은 늘 변화합니다. 내가 1991년 영국에 있을 때 학생들이 개 묶는 사슬에 묶여서 끙끙대며 동물학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동물권'이라니, 당시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인권 감수성으로 보면 새로운 인권의 목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질곡이 되는 모든 문제는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인권 항목 중 자신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Q** 원순 씨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어떤 때 행복하셨는지,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캠프 참가자 임윤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하지요. 내가 계속 검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내 친구들은 모두 검사장급인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제발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조직에서만 일했습니다. 자기를 늘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 행복하잖아요. 아직도 실무자로 뛰고 싶은데 요즘 어디 가면 '장'을 하라고 해서 괴롭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할지에 관해서, 나는 항상 자기가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남 거창고의 '직업선택 십계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구태여 가운데로 안 가도, 열심히 일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관심 없는 길을 가야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일구어 왔다기보다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내 이야기를 미리 듣고 출발하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이 글은 박원순 님이 2009년 2월 19일 공감 제2회 인권법캠프에서 예비법조인들에게 '인권과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한 특강을 정리한 것이다.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라 부르는 **박원순** 님은 공감 탄생의 탯줄이 되어 준 분이다. 공감의 첫 구성원 염형국 변호사에게 '공감'의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인권변론에서, 참여민주주의로, 그리고 기부와 나눔 문화로 끊임없이 우리사회의 빈 곳을 메워온 그는, 현재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며 '희망씨'를 뿌리느라 여념이 없다.

# 공감 : 한국의 공익법 영역의 새얼굴

글 | Patricia Goedde (성균관대 교수)

공감은 독특한 변호사 집단이다.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그룹으로서 공감은, 2003년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둔 염형국 변호사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변호사를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염 변호사에게 "명칭만 있고 돈은 없었던" '공익변호사기금'을 소개하고,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공감은 2004년 1월 3명의 변호사(김영수, 소라미, 정정훈)가 참여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2004년 12월에는 황필규 변호사가 합류했고, 현재 공감은 7명의 변호사(장서연, 차혜령 변호사 합류)와 2명의 간사가 일하고 있다. 또 외국변호사가 펠로우로 결합했고, 현재까지 약 200명에 가까운 인턴이 거쳐 간 조직으로 성장했다.

'비영리 공익변호사 그룹'으로서의 공감은 공익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감의 지향을 통해 공감이 '공익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 수 있다.

1.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통한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
2.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3.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

공감은 또한 사회 변화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고 있다.

법이 인권 보장과 사회변화라는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지향'에서 표현되듯 주요한 목표는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다. 활동 분야는 여성, 장애인, 이주와 난민, 빈곤과 복지, 공익법 일반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다: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 공감의 중심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과 인권 감수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점은 진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풀뿌리 운동과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감이 함께하는 '풀뿌리 운동'은 전국의 다양한 NGO, 센터, 위원회들도 함께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공감은 상담, 소송, 법률교육, 세미나 및 매뉴얼 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30여개의 단체들과 꾸준히 일을 해왔다. 적어도 삼분의 일 이상의 NGO는 서울이 아닌 지역 조직이었다. 공감은 출범이후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NGO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공감이 하는 일은 단순한 소송 업무의 집합, 그 이상이다. 법률교육, 세미나, 법률 매뉴얼 제작, 법률구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 공익법 활동 중개, 소수자를 위한 법제 개선 등 한국의 전반적인 공익법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 NGO와 함께하는 공익소송,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한국의 공익법 활동은 공익소송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소송 업무가 공감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 공감은 주로 장애인 차별, 여성 폭력,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소송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 밖에 법률 실무의 대부분은 단체 활동가의 법률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와 리서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공감은 '2006년 의미있는 21가지 사건'이라는 목록을 작성했다. 이들 중 7건은 이주 노동자 문제, 4건은 가정폭력, 국제결혼과 같은 여성문제이며, 두 건은 장애인 관련, 한건은 복지 시설에 관련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국가예산낭비 등 공익법 일반에 관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 중 80~90%를 승소했다.

장애인권 분야에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청계천 광장의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문화향유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한 '무장애 도시 만들기 공동행동'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여행보험 청약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있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성년후견제도, 지적장애인 지원법 등의 법률 제정에도 두드러지게 참여해왔다.

여성인권과 관련한 주요 법률 업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사건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문제이다.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탄 등 다양한 나라 출신 여성들의 이혼사건을 통해서 이주여성의 법적지위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받은 외국여성들에 대한 소송지원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문제와 관련된 주된 업무는 법률교육, 세미나,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활동가나 피해여성들에게 법적조언을 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권리를 일깨우고, 원하지 않는 '국제결혼'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알려준다.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에서 공감은 2005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영장 없는 가택조사와 구금 등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해야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 특히 미등록 이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난민신청절차를 돕고 있다.

그 외에도 공감의 활동은 노인,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정부 예산 감시, 해외 한국기업 모니터링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협력 관계의 구축

공감의 업무는 단지 소송과 법률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공익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도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노인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진행했다. 또한 공감은 이주와 난민, 여성,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국내 대표로 자주 참석해왔다.

공감의 목표 중 한 가지는, 변호사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감은 충정, 지평, 태평양 등의 로펌과 무료변론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감의 한 변호사는 "우리는 조지타운의 ProBono Institute처럼 고객과 무료변론 변호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즉 법률구조를 위한 중개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 법대의 ProBono Institute가 하고 있는 로펌과 경제적 약자를 중계하는 활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 공익법의 발전

공감은 한국의 공익법 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하지만 공익법 단체로서 최초의 모델이니 만큼, 조직의 운영과 성장, 인력 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익법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었다. 2006년 10월, 공감 변호사들은 미국 내 다양한 공익법 단체들을 방문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연수를 떠났다. 공감의 역할 모델을 찾고, 공감이 하고 있는 고민의 해답을 듣기 위해서였다.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약 20개의 단체를 방문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공감은 이 연수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 스폰서십, 기부 등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었다. 미국의 법률 매뉴얼 샘플을 수집하고, 공익법활동 분야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공감은 정규 법률교육 과정에서 공익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정규 법률교육과 법률가양성체계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법률가들을 공익적 활동으로 유인할 경제적인 동기나 직업 기회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감으로 하여금 공익법 문제를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만든 것이다. 공감의 변호사는 "우리는 로스쿨이 공익법 관련 교육을 계획하는 데에 촉매역할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공감은 한국의 공익법 발전과 공감의 역할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과 같은 공익법 단체가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공익법 단체도, 공감이 직면했던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릴 수 있다. 예를들면 경제적 생존과 지속성, 작은 규모,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 신규 변호사 채용의 어려움 등과 같은 것들 말이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여러 장애물이 많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률교육과 법조사회가 법률가의 공적 활동에 비중을 적게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NGO에 대한 지원 및 법률교육,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중개 등 공감의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의 공익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작점임에 틀림없다.

Patricia Goedde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관심분야 : 북한법제, 공익법).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국제학대학원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How Activist Lawyers Mobilized the Law for Social and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 1988-2007』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Goedde 교수는 이 박사학위논문에서 '공감은 한국 공익법의 새로운 얼굴을 상징하는가?' 라는 제목의 독자적인 장에 약 40쪽을 할애하여 공감의 의의와 그 활동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와 분석을 하고 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공감과 Goedde 교수는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08년 공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로스쿨 프로보노(Pro Bono) 및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공감은 Goedde 교수가 앞으로도 계속 공감의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채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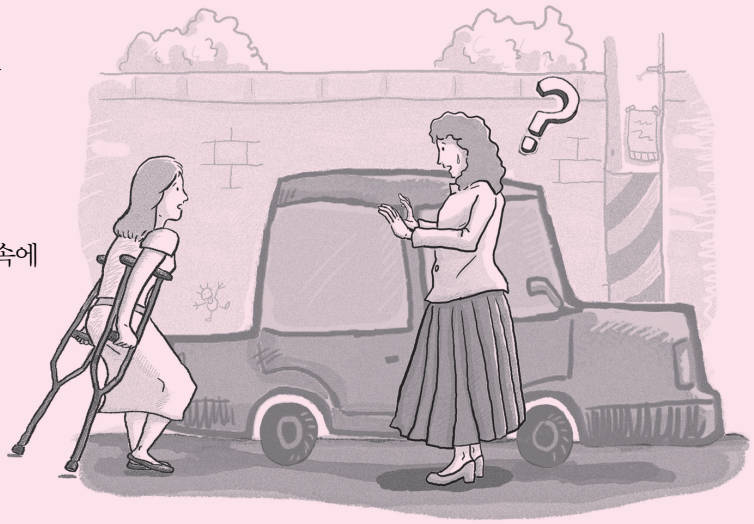
# 고정관념, 나도 모르게 나를 얽매는 바로 그 시선

내겐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다. 아마 다섯 해 전 이었던 것 같다. 골목에 차를 세워둔 채 일을 하는데, 멀리서 힘겹게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다. '저 걸음과 속도라면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참 멀고도 힘들겠다' 싶어 가는 방향이 같다면 태워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짐을 옮기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속으로는 '혹여 차를 태워준다는 호의가 과잉친절로 보이진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들었다.

이내 그 사람이 차 옆까지 왔다. 그런데 긴장해서 머뭇거리는 나 대신 "어디까지 가나요? 같은 방향이면 좀 태워주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닌가.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갑자기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전 지금 출발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이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해도 될 문제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걸어온 순간, 조금 전 긴장은 '겁'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네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였고, 나는 갑자기 바뀐 대본에 당황한 연기자였던 셈이다. 다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왜 마음과 다른 말을 했는지, 왜 그 순간 겁이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대체 왜 그랬지? 왜 그랬지?

## 장애 여성은 모두 착할 것이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해답을 알게 됐다. 우연히 읽은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활동가의 글에 답이 있었다. 글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애인은 모두 착할 것이다(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에 나오는 클라라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힌 대표적인 이미지라며, 알게 모르게 여성장애인에게는 더 수동적이고 뭐든지 감내하는 한없이 착한 여인상을 기대한다는 분석이었다.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다리가 불편했던 그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차마 말을 못 꺼내는 것처럼 보였다면, 나는 분명 친절한 척 미소를 지으며 "가시는 곳까지 태워드릴게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먼저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 낯설음과 당황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다. 상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그 상황을 서둘러 종결시켜 버린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두 해 쯤 전에 또 있었다. 지하철 환승로를 걷고 있는데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왔다. 길을 묻고 싶은 표정이기에 별 생각 없이 응대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혀가 잔뜩 굴려진 "익스큐즈 미"였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는데 그는 아예 본격적으로 말할 태세였다.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놀랬지만, 곧 '내게 못된 장난을 치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들에게 영어로 말을 건 뒤, 당황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능글맞은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뿌리친 후, 걸음을 재촉했다. 가뜩이나 밤샘작업으로 피곤했던 터라 짜증을 쉬이 떨치지 못했다. 머리로는 좀 전의 상황을 되새겼고, 입으로는 계속 투덜거림을 반복했다.

그러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아차차! 과연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어쩌면 그는 교포일지도 모른다. 외국에서 태어났고 오늘 한국에 처음 들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는 왜 겉모습만으로 그가 당연히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너무 부끄러웠다. 일단 '외모만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나이 많은 사람이 영어를 한다는 것을 의심한 것',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경계와 의심부터 한 것',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옷차림부터 뭔가 티가 날 것' 등 짧은 순간에 참으로 많은 내 안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작동시켰다.

##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일을 겪은 후 부끄러움에 스스로를 반성하며 '장애인 인권문제' 나 그들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을 없애는 교육' 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하지만 나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런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터운 사회적 편견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장치를 만드는 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나의 경험들도 단지 '불친절' 이라는 말로 규정하면 그만일 수 있겠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매우 복잡한 내 안의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이런 일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 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예를 들어, 동성애 관련 일을 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일 중 하나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엮이는 것' 은 싫다는 태도와 맞닥뜨리는 일이다.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6' 을 준비하면서도 그랬다.

상영작품을 섭외하는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됐다. 감독이 "자신의 영화는 동성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절은 사실 좀 웃긴 일이다. 마치 '너는 내 운명' 을 에이즈영화제에서 상영 요청했더니 자신의 영화는 에이즈영화가 아니므로 안 된다고 하는 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감독이 자신의 작품이 속할 장르를 정할 권리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상영을 허락할 때, '동성애란 무엇인가' 혹은 '동성애영화란 무엇인가' 에 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거절은 낙인과 같다. 퀴어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 자체가 동성애 영화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인거다. 그건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도 약자다. 인권과 문화를 말하는 영화제에, 이미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주지 못하겠다는 건 동성애자들 입장에서야 불쾌한 일이지만, 단순히 그것을 감독의 '옹졸함' 이나 '동성애공포증' 으로 간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아마도 그는 동성애 영화라는 낙인과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 아닐까?

## 스스로를 반성하다

솔직히 지하철에서 영어컴플렉스가 작동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장애인 인권을 말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인간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못했던 것도 고백한다. 서구중심주의니 문화사대주의니 운운해도 국어보다 영어 못하는 게 더 부끄러웠고, 드라마나 소설, 영화에 그려진 장애인의 이미지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사회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이간질' 이라는 생각이 든다. 못하는 것에는 주눅 들게 하고, 조금 나은 것에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주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약자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멀리하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뺏기고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편견이나 차별이 항상 공격적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찌 보면 각기 다른 사건 같지만, 이 일들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가끔씩 되새겨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마음의 죽비로 여길 것이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부족한 성품인지라 이웃사랑을 품고 살 정도로 성숙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세상의 이간질에 놀아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 공감 뉴스레터 2006년 6월호에서

김비(金 飛) | 작가

# 그 년, 목욕가다

몇 년 전, 음력 설 때였던 것 같다.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정도라면 감히 엄두를 못 냈겠지만,
노는 날이 나흘 혹은 그 이상 나란히 붙어 있으면,
나는 버릇처럼 제주도에 다녀올 생각을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나풀나풀 놀러 다녀오기
좋은 곳이다. "나 이번에 제주도 가"하면 사람들이 대번,
"좋겠다"를 연발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제주에 가는 일이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확 트인 바다와 산을 가진 그 커다란 섬에 발을 디디면,
내 오장육부에 쌓였던 숙변이 싹 내려갈 것만 같다.
그 시원함 역시 반갑기 그지없다.

여름 나절에는 휴가가 긴데다 차도 배에 태워가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신선놀음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겨울에 차 끌고 다니지 말거라"하며,
팔을 훼훼 젓는 엄마의 만류도 있고 해서 나는 주로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에 간다. 몇 년 전,
그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간 터라, 연휴 내내 여유있게
방바닥을 뒹굴며 위풍 센 방구석에서 배를 지지고 있었다.
넓지도 않은 방 안을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나를 보고,
엄마는 해수탕 뜨거운 물에 함께 몸을 담그러 가자고
옆구리를 쿡 찔렀다. 사실 나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소설 나부랭이를 쓰느라 뒷목이 뻣뻣해져 있던 차였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거의
다섯 해가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여탕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내 손을 잡고 이끄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괜히 갔다가 TV에 나왔던 내 얼굴을 기억하는
처자들이 있어 낭패를 당하지는 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나는 아래만 수술을 했을 뿐,
윗몸은 영락없는 사내놈의 그것과 다름 없었으니,
웬만큼 눈치가 빠른 여편네는 단박에 내 태생을
알아챌 것이 뻔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치는 남자의 태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니 벌거숭
이로 마주하는 일만큼은 때려죽여도 못하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간다면, 탕 속에 들어앉은
여자들 중에 자신의 터럭을 보일 처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말이다.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해서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싫다"는 내 말에 웬만하면 채근하는 일 같은 것은
별로 없던 노인네가 그날따라 참 끈질겼다.
평소에 엄마와 함께 해수탕까지 마실을 다니시던 새
아버지도 그날따라 발을 다쳐 엄마와 동행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목욕탕 옆 찜질방에 앉아
있겠다는 단서를 달고 따라 나섰다. 그러나 목욕탕에
도착해보니, 그 놈의 시골 해수탕이한 곳은
찜질방만 따로 있고 옷은 탈의실 안에서 갈아입어야
하는 터라, 나는 꼼짝없이 여탕 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커다란 키에, 계집년보다는
사내놈에 가까운 내 몸뚱이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은 없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옷까지 벗고 나니, 엄마는 그깟 하나마나한
찜질보다는 해수물에 몸을 담그는 게 낫지 않겠냐고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얼레벌레 엄마를 따라
탕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괜히 이 년의 태생이
들통 나 엄마와 한 무더기로 봉변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구석에서 물을 찌그리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앉은뱅이
의자를 주섬주섬 들고서는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등을 벅벅 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라서 어찌 쓰냐, 밥 좀 처먹고 다녀라"
타박을 하며, 엄마는 한참을 그렇게 내 꼬챙이 같은
등에 얼굴을 박고 땀을 흘리다가, 남이 들을까
내 귀에 팅팅 불은 얼굴을 들이대고는 이렇게 속삭였다.
"괜찮다, 이 정도면 그냥 목욕탕 다녀도 괜찮겄다,
그 동안 목간도 못 다니고 힘들었지? 그냥 편안하게
다녀도 되겄어". 그리고는 투덕투덕 내 등을 두드렸다.

뜨거운 해수물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눈가가
뜨거워졌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뜨거워져
나는 한참이나 샤워 물줄기 속에 그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엄마,
'트랜스젠더' 니, '성 정체성' 이니,
그런 것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것 같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내 얄팍한 머릿속보다
더 깊이 내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하루하루를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것은 내 평생 처음으로
등줄기가 저릿저릿해지는 그런 위로였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문이 나왔다. 그러나 TV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엄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반쪽짜리 당신 딸년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잘 모르실 것이 뻔하다. 이번 여름에 제주에 가서
'그 판결이라는 것이 당신 자식 앞으로 살아가는데
숨통 트이는 일이었더라' 하고 이야기하면 그제야
'잘 되었네, 잘 되었네' 함뿍 웃어주시리라.

그렇게 모자란 어미를 대신해 그 동안 애써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지만, 그것은 내 어미가 하는
자식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모자라고 서러운 내 삶이 조금 더 당당해지는
일이었음을 쑥스럽지만 웃으며 말씀 드린다.

난데없는 수마가 온 나라 국민의 마음에 아픔을
새긴 지금, 나와 내 어미의 가슴에 희망이 싹텄듯
이 세상 모든 희망을 갈구하는 분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이 비추시기를. 절대 쓰러지지 않는
부활의 날들 되시기를.

– 공감 뉴스레터 2006년 8월호에서

**뚜라** | 버마행동 대표

##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오. 나도 평화의 나라에 살고 싶소

너무 버벅거려서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를 못하는데, 글을 쓰려니 어려움이 많네요. 비교적 자신 있는 버마어로도 집에 보내는 편지조차 제대로 못 쓰는데, 한국어로는 오죽하겠어요. 며칠 전,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간단한 설문조사 정도로 알아들었는데, 실제 글을 써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확인하고서 속으로 이번에도 '잘못 이해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글을 쓰려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가슴에 숨이 차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인권 및 조국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이는 22살이었고, 올해로 35살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만큼 이제는 고향 버마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한국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주노동자가 아니거나 동남아시아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온 날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 안에서 나를 욕할까봐', '위험한 일을 시킬까봐', '다칠까봐', '월급을 안 줄까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단속에 걸릴까봐' 등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활동가로서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정부가 버마의 군사독재 정부를 반대하는 나를 비롯한 활동가 친구들을 추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갖고 사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삶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한다' 는 사실입니다.

'평화' 하니까 기억나는 일이 있네요. 어느 날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선생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다들 평화에 대해 비슷한 생각들을 내놓더군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배고픔 없이, 안전하게 사는 삶' 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평화의 의미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내리고자 이후 몇 일간 평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 당신은 평화로운 사회에 살고 있나요?

배고픔 없이 안전하게 산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평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과연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교적 풍요롭고 안전한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도 주린 배를 잡은 채, 불안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나 동티모르, 심지어 버마보다도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정치적으로도 자리가 잡았습니다.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물론 잘 갖춰져 있어서,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당신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 혹은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화가 있다' 혹은 '없다' . 다양한 답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나는 '없다' 고 말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KTX 여 승무원 문제부터, 한-미 FTA 협정,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노조 활동이라며 테러리스트로 명명해 강제로 잡아서 쫓아내는 법무부의 행태를 보며 '배부른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배고픈 자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버마에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재정권에 돈을 벌게 해주고 버마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스개발 공사를 진행하며, 무기와 기술까지 지원하는 한국기업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과 불안전을 염려해 내 것 만을 챙기면 결국에는 남의 것, 남의 안전, 남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된다' 고 말입니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미국이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중국은 건드리지 못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위험한 국가로 내모는 것을 보며, '내가 먼저 평화롭게 살아야 남도 평화롭게 산다. 내 것을 챙기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기계에 다칠까봐 걱정하고, 출입국 직원이 쳐들어올까봐 불안한 이주노동자들을 보면서 '육체적인 안전' 보다 '마음의 안정' 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개인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고향 버마에서도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 내가 사는 한국에도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서로 싸우지 말자' , '약한 자를 보호하자' ,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자' , '생명을 죽이지 말자' , '자비를 베풀자' 라는 어린 시절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공감 뉴스레터 2006년 10월호에서

**최충언** | 구호병원 외과의사

# 무료진료소에서 만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슬픔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태가 지났다.
온라인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몇과는 참 소중한 인연을 맺기도 했다. 오월 어느 날이었다. 진료실에 자그마한 책자가 배달됐다.
그것은 아름다운재단 소식지〈콩반쪽〉이었다.
책을 보내 준 이는 얼마 전, 블로그에서 만난 '공감' 기부자 선혜숙씨였다. 그간 그와 나 사이에 여러 번 쪽지가 오갔고, 자연스레 '공감'을 알게 됐다. '공감' 뉴스레터에 실린 그의 글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었다.

IMF로 구조조정의 칼날이 춤을 출 때, 나는 스스로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찾아 간 직장이 '구호병원'이다. 그 곳은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자선병원이다. 이후 외과과장으로 8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모아 〈단팥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태 전에는 부산 송도에 있는 천마산 자락 달동네에서 후배의사와 둘이 '남부민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후에도 바쁜 일상은 계속됐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구호병원에서 '소년의 집' 아이들을 진료하고, 일요일마다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나눠볼까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고달픈 삶과 마주하며

현대를 '이동의 시대'라고 한다. 각국의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듯, 값싼 노동력을 찾는 자본은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혹은 국제결혼을 통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점차 우리 산업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3D 업종과 영세 중소사업장은 그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또한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도 많이 진출해 국내 노동인력 중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며 은연중에 차별과 무시를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허가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앤, 평등함을 담은 '이주노동자'라는 말로 바꿔 불러야 함이 마땅하다. 혹은 단지 노동자로 등록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미등록노동자'라고 불러 용어상의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2003년부터 부산교구 직장, 노동사목의 의료팀 자원활동가로서 주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일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진행되는 미사에 참례하고, 진료활동에 들어간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단체에 자원활동가로 몸담게 된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이곳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소공동체를 지향한다. 또 사람들과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누며 직장에서 겪는 노동문제를 상담하기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찾는다. 그들은 각자 가슴에 아픈 사연들을 갖고 있다. 감금상태로 지내다 탈출했다든가, 폭력에 휘둘려 사경을 헤매었다든가, 아니면 장시간의 노동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다.
심지어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악성종양에 걸려 주검으로 고향에 돌아간 친구도 있다. 반대로 다행스럽게 암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되찾은 친구도 있었다.
그 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호형호제하는 마리오 파구이칸은 한국에 온지 14년째다. 나보다 네 살이 많은 그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는데, 내가 '구호병원' 외과과장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그간 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 할 때마다, 나의 얼굴은 달아오르기 일쑤였다. 그의 말을 빌려보면 이렇다. "한국에서 미등록노동자로 살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겠지만 정말 힘들다. 하지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내 아들 · 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꿈이 있기에 참고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매주 일요일, 성당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면 대부분의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느낀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가끔씩 호의를 베풀며 말을 거는 남자들은 한결 같이 반말이다. 한국말이 서툰 우리도 반말로 응대하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이미 우리는 격식을 갖춘 한국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더 심하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태도와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필리피노인 우리는 대체로 웃는 얼굴을 하며 산다. 그것이 우리의 평소 표정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웃는 얼굴에 사정없이 욕을 하고 화를 낸다. 영어라도 써서 무엇 때문이지 말해주면 좋으련만, 우리로서는 영문도 모르고 당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눈치를 살피는표정으로 변해 버렸다.
달라져 버린 친구들을 보면 나는 슬프다."

##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눔은 인간생활의 기본조건 아닐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소유를 나누는 것은 어렵다. 내 마음이 가난한 이웃에게 온전히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진료소를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는 것은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다. 나눔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다.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며 은총이리라. 지난 일요일에도 마리오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 고된 노동 탓이리라. 나는 마리오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착한 이웃집 형님 같은 수줍음 많은 그의 너털웃음을 보고 싶다. '고향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고 싶다' 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피부색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희망의 싹이 아닐까?

– 공감 뉴스레터 2007년 8월호에서

하승수 | 제주대 교수

# 겸손하게, 늘 처음처럼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메일을 보내 안부를 묻다가 만나기도 한다.
별로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자꾸 사람을 찾는 걸 보면 뭔가 허전한 것이 있나 보다.

사람을 만나다보면, 그 사람이 변한 것도 보게 된다. 스스로는 안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변한 것 같은 사람도 있다. 바람직하게 변한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나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 되돌아보게 된다.

##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남긴 짧은 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성적인 절대만을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여 상대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삶도 아니고,*
*상대적인 다양한 현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도 아닌 바탕에 공동체적인 삶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면,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을 사는 사람의 기본자세다.
사람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현실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일순 선생의 말씀에 따른다면 '아낌없이 나누기 위해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사양하며 검소하게 사는 삶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기본이 되는삶의 모습' 이다. 추상적인 이념이나 이상보다, 머릿속에 든 당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할 것이다.

## '처음처럼' 의 의미를 묻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다. 과거 내 주위에도 거대한 이념이나 거창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상당수는 빨리 변하곤 했다. 오히려 그 때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 삶과 사회를 '경쟁' 과 '물질중시' 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들의 생각에서 '협동' 이나 '공동체' 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장식물에 불과한 듯하다.

물론 묵묵하게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묵묵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 온 사람들, 농촌에 들어가 엘리트들이 버린 농촌과 농업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시민 · 사회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처음처럼'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풀뿌리 운동' 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풀뿌리' 라는 말이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표현 인것 같다.
이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 같다.

## 겸손하게, 늘 '처음처럼'

요즘 환경운동연합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물론 다른 시민단체들,
특히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시민단체들이나 풀뿌리지역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다.

사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작은 단체들이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보증금 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활동가들의 활동비로는 여전히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수준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억' 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단체나 활동가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이번 횡령사건을 빌미로 시민운동 전체를 폄하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그럴 자격도 없다.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혹은 적은 활동비 때문에 생활이 쪼들리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시민단체만큼 절박하게 부여잡고 있었던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겸손하게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단지 지금의 국면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대하고 답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그럴만한 힘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초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겠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삶을 타인에게 요구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꿈꾸어가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일 것이다.
아직도 그런 희망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 공감 뉴스레터 2008년 12월호에서

# 다섯 살 공감이 걸어온 길

History

## 2003

12월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근무 시작

## 2004

1월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근무 시작

1월 16일 '공익변호사그룹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김민경 간사 근무 시작 (~2005. 5)

2월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찬반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

3월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8월(~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활동)

11월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12월 황필규 변호사 근무 시작

12월(~현재) 버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및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 2005

2월-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3월 윤정원 펠로우 근무 시작 (~2006. 2)

3월 21일-4월 7일 전국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3월 24일 공감 인턴쉽 프로그램 시작
(2009년 현재 정기인턴, 수시인턴 228명이 수료하였고,
9기인턴 24명이 활동중이다. 또한 매년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도 진행하고 있다.)

1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변호사 파견 법률상담 및 지원
2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를 위한 1인시위
3 교남소망의집 세미나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필리핀 공동체 외국인노동자상담실 법률지원 활동

1 국제결혼중개시스템 베트남 현지조사 발표
2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주최 장애인법률학교

4월–12월 국제결혼중개구조 베트남 · 필리핀 현지조사 및 결혼중개업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5월 전영주 간사 근무 시작(~2007. 8)

7월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3개 공익단체)

8월 송성수 펠로우 근무시작(~2006. 1)

11월 2일 법무법인 충정과 공익소송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충정과 공익소송 업무협약 체결

## 2006

1월 자문위원단 구성(15인)

2월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1개 단체)

2월 22일 공감 2주년 기념 후원행사 '공감과 공감하기' 개최

4월 19일 37기 사법연수생 160명,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

6월 1일 – 12월 31일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 관행에 대한 기획소송

1 (사)한국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최 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모색'
2 이주분야 소송기획 간담회

6월 – 7월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 –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캠페인" 전개 (차별적국제결혼광고대응을위한 공동행동)

6월 권희 간사 근무 시작

»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규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 기자회견

7월 20일

**●보험사의 장애아동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하다."*

공감은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가입 거절과 관련,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회원부모 및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D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는 관내 장애아동 통합교육 캠프를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보험가입을 받지 않기로 내부지침을 바꿨다"는 이유로 D보험사 등으로부터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었다.

8월 제5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7개 단체)

9월 김미라 펠로우 근무시작(~2007. 2)

9월 2006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집필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발간)

10월 11일-10월 30일 해외탐방-미국 공익법단체를 찾아서.....

» 아동학대예방 법률매뉴얼 발간 회의

» 해외탐방-미국 공익법단체를 찾아서...

10월 13일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승소**

*"우리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절차는 공개돼야 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 이에 공감은 강모씨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인정절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21일-10월 30일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_NGO 반박보고서 제출

11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 매뉴얼〉 집필 및 법률교육 (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발간)

12월 1일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부문 수상

12월 7일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12월 30일 정정훈 변호사, 제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부문 수상

»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 2007

1월 11일 – 8월 20일 황필규 변호사 – Unversity of Oxford Centre on Migration, Policy & Society 파견근무

2월 장서연 변호사 근무 시작

3월 희망변론 프로젝트–공익단체 법률지원 진행(7개 단체)

5월 7일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5월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공동기획)

7월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집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간)

6월 22일

●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산업연수생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첫 사례"*

공감은 산업연수생을 대리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산업연수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이나 열악한 노동조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수업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6월 26일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 2008.11.15 대법원 확정 판결

*"중국인 첫 난민인정 판결"*

공감은 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과 그 가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요지〉** *"원고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 민주당 주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점,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 · 구금 등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송환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7월 5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와 파트너십 체결

7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공감은 광명경실련 및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7월 26일 – 8월 3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8월 전은미 간사 근무시작

9월 28일 필리핀 가톨릭추기경 Gaudencio B. Cardinal Rosales 로부터 감사패 받음

10월 23일 – 11월 22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12월 10일(~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12월 13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12월 26일

●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활동)

공감은 A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시 강남구 포이제4동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요지〉** *"원고가 5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집단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강남 · 서초 · 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진행

12월(~현재)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 2008

1월 14일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로펌과 공익단체 간 직접적인 법률지원협약 체결 중개

2월 14일-2월 16일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 2회에 걸쳐서 대학생과 예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의 현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 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
(1회 : 2008. 2, 2회 : 2009. 2)

» 2008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3월 차혜령 변호사 근무 시작

3월 25일 법조협회 제2회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3월 26일-28일 필리핀 공익변호사단체연합인 Alternative Law Groups(ALG) 주최로 열린 Regional Conference on Lawyering for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 참가

» 법조협회 제2회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

4월 11일(~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점검 및 대응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활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

4월 24일-26일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로스쿨 주최 '국제장애인 인권 심포지엄' 발제

5월 14일(~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업

5월 16일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 대형로펌의 공익활동 담당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

»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5월 17일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전망과 모색〉 개최

6월 2일 법무부의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공동활동)

7월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서 작업

7월 15일

**● 군대 내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죄 항소심 변론에서 무죄판결 선고**
→ 11.27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공감을 포함한 14개 인권단체는 제1심인 사단군사법원에서 스토킹 피해자 A대위의 항명죄 유죄 판결이 나온 후 A대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공감은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A대위를 위한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고등군사법원은 스토킹 피해자인 A 대위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명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8월 김윤경펠로우 근무시작

9월 30일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공감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남성의 지적 장애 사실을 은폐한 경기도 소재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혼인관계 조기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10월 15일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주거기본권확보를위한 동작공동대책위원회 공동활동)

공감은 흑석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발제

11월 7일

**●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공감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측을 대리하여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구세군은 오랫동안 노숙인쉼터를 운영해오다가 자활가능성이 검증된 홈리스들의 자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랑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중랑구는 노숙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드러내며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12월 2일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 (난민정책개선모임 공동활동)

## 2009

1월 8일

**● 버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난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증정도를 완화하여, 난민인정을 한 판결"*

버마소수민족인 이 여성은 난민신청일부터 1심 재판때까지 1년 9개월의 기간동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1심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진술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패소판결을 받았고 공감이 소송대리한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난민인정과 더불어 지나치게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방치는 또다른 인권침해이다."*

1월 20일(~현재) 용산 철거민참사 관련 활동

1월 22일 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2월 12일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 (이주정책개선모임 공동활동)

2월 19일-2월 21일 예비로스쿨생, 예비사법연수생 대상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 2009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 공감의 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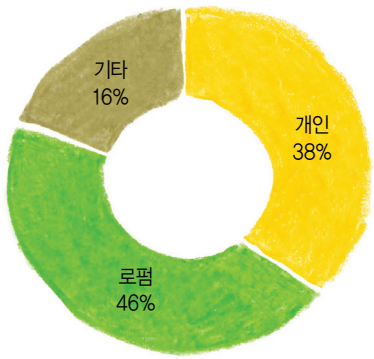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현재 공감의 모든 사업 진행과 사무실 운영은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감은 시민 여러분들의 온정이 담긴 기부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수고,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까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결실입니다.

## 2008년 공익변호사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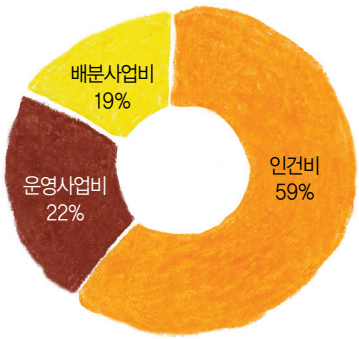
(단위 : 원)

| 수 입 | | 지 출 | |
|---|---|---|---|
| 개 인 | 193,561,452 | 인건비 | 279,715,000 |
| 로 펌 | 235,338,000 | 운영사업비 | 102,597,478 |
| 기 타 | 81,369,535 | 배분사업비 | 91,167,040 |
| **수입 총계** | 510,268,987 | **지출 총계** | 473,479,5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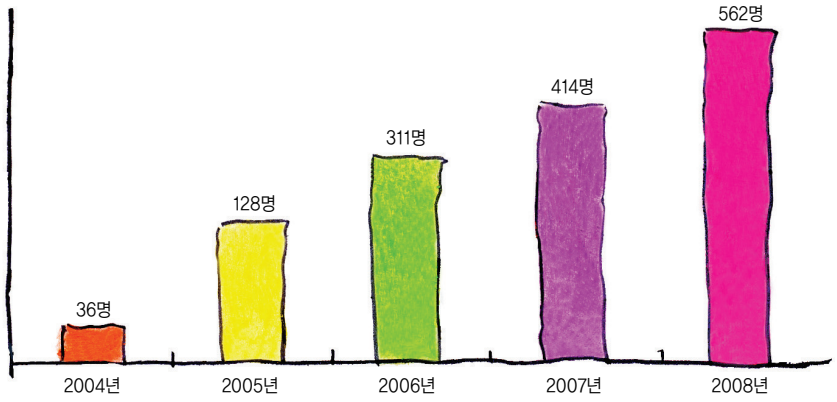
2008 기금 수입




2008 기금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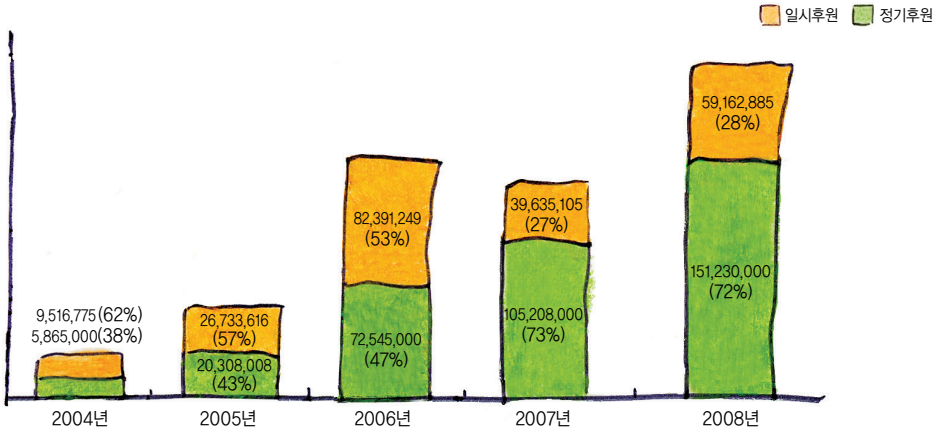


## 연간 월평균 개인기부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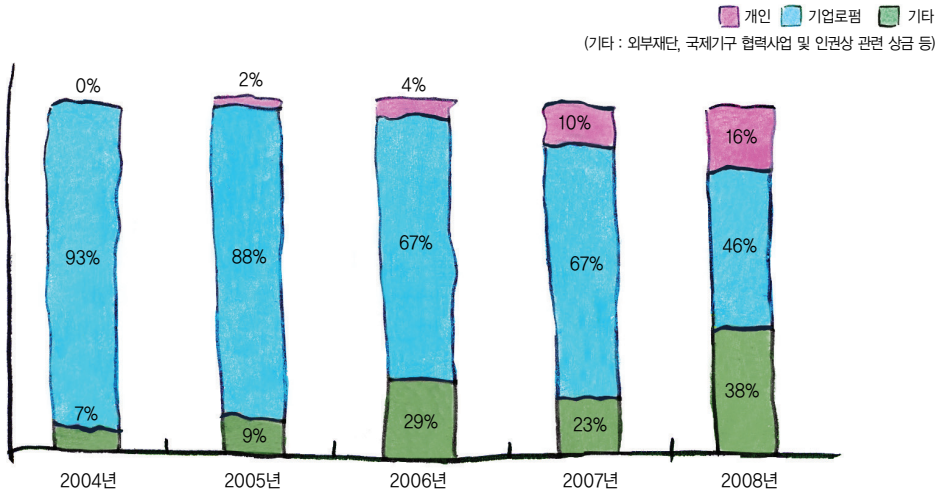



## 연간 월평균 개인기부금 현황

(단위 : 원)




## 연간 유형별 모금분포



# 후원 안내

*아름다운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한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변호사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과 적극적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변호사들의 굳은 결심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 gonggam@beautifulfund.org
전화번호 | 02-3675-7740
계좌번호 |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지정대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연말에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12월 초에 일괄 우편으로 보내드리며, 원하시면 별도로 발행하여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 기부자님들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사업보고서와 자료집 등의 출판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공감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로서 공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기부자 희망메시지 hope message

처음과 같이, 이제와 같이, 영원히... _**이상석** 기부자

지금까지 걸어온 5년, 이후 걸어갈 50년, 100년.
또 다른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감'이 있어 든든합니다. _**이상희** 기부자

이제까지처럼 언제나 세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김동율** 기부자

공감과 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그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만,
공감은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약한 이들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에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소외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감의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_**서범욱** 기부자

법대생으로서 공부하다보면, 가끔씩 내가 사회에서 특권층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회의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공감'을 알고 난 이후로는 법률가로서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높은 곳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감'이 널리 널리 퍼져가길 기원합니다.
'공감'의 5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_**박세훈** 기부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전 그건 현재의 '공감'과 같다고 생각하죠. 하나, 하나의 벽돌이 쌓여서 벽을 이루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꿈을 이루어가는 곳, 공감. _**채희선** 기부자

마음으로만 응원하다가 '기부'라는 방법을 생각해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작은 도움이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공감의 활동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 공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감 파이팅! 정말,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주세요!! _**박노민** 기부자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재단 애린복지재단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오렌지카운티한인변호사회 외환은행나눔재단 유토글로벌 인천장애우연구센터 천안외국인노동 충남장애인학부모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유네스코

당위와 존재 사이의 간격은 멀지만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상이 현실을 끌어당기길...
그 길에 항상 우리의 '공감'이 함께하길... 사랑합니다. _**문승권** 기부자

2009년에는 '공감'도 '나'도... 그 반석이 더 견고해지길... _**박영선** 기부자

늘 같은 걸음, 하지만 늘 변화하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 시대 민중들의 꿈과 기쁨이 될 것을 압니다.
5주년을 축하합니다. _**이창수**

"세상이 꺼려하는 낮고 어두운 곳에 기꺼이 내려앉아 마음 나눌 친구가 되어주고
쉬어갈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처지를 대변할 목소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이들의 공동체-공감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_**서지은** 기부자

공권력의 마구잡이식 국민폭력에 싸움을 말리고.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봐 애들은 풀어달라고 사정했던 작년 여름.
그러한 것도 죄가 된다고 해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휴,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우리 변호사님들.
님들이 있기에 저희 같은 민초가 안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를 준수하며 살아나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_**김경숙** 기부자

제게 믿음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공감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일을 계기로 공감에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들인지를 깨닫게 되었기에 나눔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무궁한 발전과 변호사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_**조태미** 기부자

기부자 편지 letter

저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제가 떳떳하게 이기적일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좋지만은 않더군요. 빨리 사회가 좀 나아져야 제가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텐데 말이죠. 세계화니 신자유주의니 해서 세상이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이 법원 안과 밖에서 우리와 소통하고 있지 못한 수많은 친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수적이지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테니까 말이에요. 공감의 변호사님들과 간사님 그리고 공감과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 아니 공감과 공감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파파파파파파파파이팅입니다.

_ 천하람 기부자

공감을 만난 이후로 스스로가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 에 기대하는 바가 큰지도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공감' 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한 소통의 목소리들이 세상을 향해 계속 퍼지길 바랍니다. 저도 작지만 '낮은 곳' 의 목소리들을 담고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실력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네요. 항상 마무리가 어렵더라고요. 비록 잘 쓰지는 못했지만 '공감' 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운이 오래도록 간직되길 꿈꾸며, '공감' 식구들과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할게요.

_ 박지호 기부자

몇 천원 차이. 무심코 지하철 정액권을 끊을 때면, 학생권이 아닌 일반권을 제대로 구입하긴 했지만 금액 차이는 무심히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서의 받아왔던 보이지 않던 혜택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쉽사리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득 이제는 나도 사회에 베풀면서 살아야 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 인것 같습니다. 그저 일년에 자선단체나 모금활동 하는 곳에 몇 만원씩 내거나 일이년에 한번 정도 봉사활동에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 그런 사회인이 됐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처음 공감과 저의 첫 만남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일 안 시켜주면 아마 제가 쳐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공감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회인이 되고자하는 노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_ 박익형 기부자

공감과의 인연, 그게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사회생활을 9년째 하다 보니 눈치가 9단이라, 내 친구인 정훈이가 좋은 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하고 당분간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공감이라는 곳의 운영이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꾸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나는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됐다. 매월 25일 통장에 "아름다운재단"이라고 찍히는 걸 보면서, 스스로 대견하고 흐뭇해하며 친구 얼굴도 가끔 떠올려보곤 한다.

_ **정창권** 기부자

나와는 직접적으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일도 언젠가는 나와 혹은 내 주변과 아주 밀접한 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회적 연대와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더구나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더없이 소중하다. 나는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은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공감〉에 기부하게 된 동기인 것 같다.
비록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은 여의치 않지만, 기부로써 그 소중한 뜻을 함께 한다면 그것 또한 내 나름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있고, 삶에는 돈으로 척도를 매길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감〉의 변호사 분들과 관련자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파이팅!"

_ **김경열** 기부자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고 나서 한창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어느 날, '공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나눔이 그렇지만 특히 공감에 '필'이 꽂혔던 것은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로 인해 몇 차례 '해고'라는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물론 '공감'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의 그것에 비하면 저의 사연이란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감을 후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경에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공감의 후원회원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더욱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젠가는 빛과 진실이 어둠과 거짓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위해, 출세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수고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_ **이다희** 기부자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 대학교 재학 시절 몸담았던 동아리의 구호이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문구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과감히 이상을 선택하여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감' 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비겁한 지식인 중 한사람으로써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인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가르쳐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_ **김세명** 기부자

6개월간의 인턴활동을 마친 후 남았던 가장 큰 아쉬움은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나 인턴활동을 해봤지만, 공감에 인턴으로 참여한 것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때처럼 직접 참여 할 수는 없지만, 기부를 통해 공감과 함께 할 수 있고, 공감의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공감에서 활동 할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참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저와 같은 조그만 관심이 모여 공감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 **박신영** 기부자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 사이는 결국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니까요. "공감"은 소통의 정도로 치면, 가장 아름다운 단계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나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공감은 오롯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의 해석도 해보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예전에 배웠던 中庸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늘 한결같고 자연은 늘 그렇게 한결같지만 사람은 한결같지 못한 존재이기에 자연에서, 그 한결같음을 본받아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라는 내용이라고 배웠습니다. '한결같음' 이라는 단어가 공감분들에게는 참 어울리는 단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_ **김정환** 기부자

**염형국**이 생각하는 공감은 **'가을 우체국 앞'** 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들이므로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고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야 한다.

별명 - **"생각대로 하면 되염~"**
비비디바비디부~ 그저 마법의 주문을 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문은 바로 그의 글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뚝딱, 그는 결코 '납기일'을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곧바로 가슴으로, 다리로 전달되고, 막힘이 없이 경쾌합니다. 간디의 말처럼 진보가 단순화라면, 삶의 단순화라면,
그의 비비디바비디부~는 진보와 인권을 위한 유쾌한 주문입니다. 글 | 정정훈

**김영수**가 생각하는 공감은 **'낮은 울타리'** 이다.
너무 높지 않고, 웅장하고 단단하지도 않은, 그래서 전혀 위압하지 않고 그저 나즈막히,
제자리에 서서 누구든 따스하게 둘러줄 수 있고 또 누구든 편히 기댈 수 있는...

별명 -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이름난 지식 서비스처럼, 무엇이든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만 나오리라는 당신의 생각은 오산.
공감산행에서 만난 성곽의 유래, 가회동, 원서동을 아우르는 북촌과 사대문 안의 이야기들, ……. 그의 조곤조곤한 목소리에 담겨나오는 이야기는 역사와 지리, 인문과 사회를 넘나듭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해답을 주기도 하며, 굳건히 공감 사무실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이 소개글은 NHN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D 글 | 차혜령

**소라미**가 생각하는 공감은 **'일기장'** 이다
고민하고, 설레이고, 화나고, 반성하고, 기대하는 하루 하루 나의 희노애락을 적어나가는, 그리고 내가 변해가는...

별명 - **안방마님**
"예전에, 안방에 거처하며 가사의 대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집의 마님을 이르던 말." 그녀의 하이 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소 수다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목소리보다도 더 하이 톤의 웃음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고, 냉정하면서도 지긋한 정이 느껴지는 그녀의 외침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글 | 황필규

**정정훈**이 생각하는 공감은 **'空減'** 이다.
적극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인권 문제의 법적 공백(空)을 조금씩 지워(減)가고 있다. 공감에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한다.

별명 - **폴더정**
접힌다..... 술자리에선 어김없이 접히고 만다..... ^^;
그렇게 그가 폴더가 되면, 그와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모인 이들의 마음은 갈 길을 잃고 맙니다. (^^)
사람을 향한 진정성과 날카로운 통찰력,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은 누구나 그의 팬(벗)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감에 있어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의 무기가 잘 쓰여서, 그의 팬이 더욱 많아지고 그와 같은 무기를 갖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리가 그리던 곳과 가까운 곳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 | 전은미

**황필규**가 생각하는 공감은 **'함께 가는 길'**이다.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꿈을 가지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꿈이 커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 줄 사람, 꿈을 지키지 못할 때 꾸짖어 줄 사람, 꿈을 버리지 말라고 토닥거려줄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꿈이 허황된 것이라면, 마냥 꿈만 꾸고 있는 것이라면 혹은 꿈을 꾸며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꿈에서 깨워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함께 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간다.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

별명-**마당쇠**
태권브이 노래를 부르며 깡총깡총 춤을 추는 그의 매력에 공감 구성원, 대학생 인턴, 심지어 해외 활동가마저 푸욱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의 마르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 체력은 어디에서 샘솟는지. 야간당직, 주말당번 자청하며 밤낮없이 공감을 지키는 그는,
기금 모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 꾸벅 인사 청하는 그는, 공감의 맏형이면서도 궂은 일 마다하지 않는 낮은 자세의 그는, 진정한 공감의 마당쇠입니다. 글 | 소라미

**권회**가 생각하는 공감은 **'…'** 이다
공감을 쉽게 정의하기 어렵다. 공익변호사기금 없이 구성원의 열정만으로 하기 어렵고,
낮은 곳에 임하는 열정 없이 기부자의 기금만으로도 하기 어려운...

별명-**지리산 뻥쟁이**
지리산도 종주했고, 등산학교를 수료했으며, 암벽도 탔다는 그녀~ 그런데 공감산행에서는 왕년의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산행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늘 마지막을 자처하며 천천히 산행을 즐기는(?) 그녀. 그녀가 있어 공감산행은 늘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사진 찍히기(노출?)를 극히 꺼리는 그녀를 만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감산행에 참여하는 방법과 공감에 기부하는 방법이에요. 참~ 쉽죠잉~^^. 공감 기부자가 되면 그녀가 손수 쓴 감사카드를 통해
그녀의 세심한 마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글 | 장서연

**장서연**이 생각하는 공감은 **'바다'**이다.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며, 가장 낮은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곳.
통이 크고 넓으면서도 유연하고 유동적인 곳, 변화하기 위해서는 은근한 끈기를 필요하는 곳.

별명-**진돌이**
자그만한 체구의 그녀는 유순하면서도 자유롭고 또 발랄합니다. 푸근한 웃음과 넉넉한 배려로 늘 주위를 편안하게 하지요.
연수원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여 '바이클 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두잔... 술기운이 오를 때, 팔짱을 끼고 날려주는 그녀의 쿨한 미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길^^, 정말 매력적이지요) 그런 그녀지만, 하는 일에는 아주 당당하고, 용감하고 또 거침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
공감에 SOS를 보내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곤 합니다. 그리곤 한번 맺은 인연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할 줄 아는 믿음직한 친구가 되지요. 글 | 김영수

**전은미**가 생각하는 공감은 **'당근과 채찍'**이다.
나와 다른 생각·사람·사물에 마음을 열도록, 그리고 나를 낮추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좋은 것을 꿈꾸고 희망을 갖게하는...

별명-**여전한 걸**
그녀는 항상 여전한 모습입니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깔끔한 일처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북촌에서 인정하는 미모도 그대로이구요.
아쉽게도 구성원에게는 채찍을, 인턴에게는 당근을 주는 편애도 달라지지 않네요 ㅠㅠ 폭탄을 맞은 듯한 그녀의 책상도 여전하지요^^~
그런데 체력장 특급을 받았다는 그녀의 체력은 왜 여전하지 않은 걸까요. 병원엘 자주 드나드는 건 여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 실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공감의 홍보실장으로 여전히 계실거죠?? 글 | 염형국

**차혜령**이 생각하는 공감은 **'낮꿈 꾸는 곳'**이다.
밤에 꾸는 밤꿈 말고 낮에 꾸는 낮꿈. 인권을 찾고자 하는 소수자의 꿈, 소수자의 꿈 실현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꿈,
더 나은 세계를 보고자 하는 나의 꿈, 남의 꿈과 나의 꿈을 함께 꾸는 곳, 공감.

별명-**엉뚱 차**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만 3년 근무하고 엉뚱하게 공감에 새내기 변호사로 들어왔습니다. 점심과 저녁, 밖에서 식사를 하러 오가며 곧잘 아들에게 불러주는 동요를
아무렇지 않게 큰 목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급한 사안이 터지면 공감에서 가장 빨리 달려가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가장 느긋하기도(?) 합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에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쥬디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을 하면 정말 난감하기도 하지만, 귀여운 외모에 엉뚱한 점이 매력인 그는 그래서 '엉뚱 차'입니다.^^
글 | 염형국

공감 다섯살,
참 고맙습니다

200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창립 5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일 2009년 5월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58-1번지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기획·편집 전은미
디자인 nina's eye 02-2604-0139